

충남 외자유치 실적 전국 1위...역대 최대치

- ▶ 지난해 외투기업 투자금액 17억 달러 돌파
- ▶ 2018년 투자금액 2억4913만 달러 대비 604% 증가
- ▶ 반도체 등 소재·부품·장비산업 유치에 전력

2020년 1월 15일 ~ 1월 24일 제864호

충남도정



대한민국 중심 | 발행인 문화체육부지사 | 편집인 공보관 | 창간 1990년 12월 15일 | 발행주기 매월 5, 15, 25일 발행 | 주소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 전화 (041)635-2035 | https://blog.naver.com/chungnamdojeong



서해안 새 지도 만든 원산안면대교 개통

충남도의 대역사 중 하나인 원산안면대교가 지난달 26일 마침내 개통됐다. 도는 이를 계기로 원산·안면도 지역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해양치유센터 건립 등 '충남형 해양신산업' 추진과 각종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원산안면대교는 전국 6번째인 1.8km 길이에 왕복 4차로 규모의 해상교량으로, 지난 2010년 12월부터 9년 간 2082억 원이 투입됐다.

미래車·바이오·수소...7.8조 투입 10년 먹거리 다진다

미래 10년 충남의 전략산업과제 발표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으로
주력·특화산업 경쟁력 향상

미래차 2500억, 바이오 1200억
수소에너지 4조 4000억 투입

“국가 정책 선점 우위 확보해
도 지속가능한 성장 견인할 것”

충남도가 앞으로 10년 간 7조 8300억 원을 투입, 미래자동차와 바이오, 수소 등 충남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신성장동력 산업을 중점 육성한다.

충남도는 지난 8일 도청 프레젠테이션에서 '미래 10년, 충남의 전략산업과

제'를 발표했다.

충남의 현실에 대한 진단·분석을 통해 정리한 이번 전략산업과제는 도 여건 및 특성에 부합하고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국가 정책을 선점하고 국비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10년 내 성과 창출이 가능한 대규모 단위 사업들이다.

전략은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주력산업 고도화'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신산업 육성' ▲자립 성장을 위한 '지역특화산업 육성' ▲성장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으로 잡았다.

추진 과제는 ▲미래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차세대 디스플레이산업 육성 ▲바이오 미래 신산업 육성 ▲수소 기반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구축 ▲충남 실감콘텐츠 R&BD 클러스터 구축 ▲해양생태자원 활용 해양신산업 육성 ▲국방산업 클러스터 구축 ▲금강권 역사문화관광 플랫폼 구축 ▲천

안아산 KTX역세권 R&D 집적지구 조성 ▲제조혁신파크 조성 등 10개다.

이 중 미래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은 친환경 완전 자율자동차 시대에 대비, 친환경·융복합 등 미래 경향에 부합하는 기술을 선도적으로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세부 사업은 ▲수소연료전지차 국가 혁신클러스터 구축 ▲소형 전기 상용차 부품 기업 육성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센터 건립 등으로, 투입 예산은 2025년까지 2518억 원이다.

바이오 미래 신산업 육성 과제 중 마이크로바이옴산업 성장 생태계 조성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2500억 원을 들여 KTX 천안아산역 R&D 집적지구 내에 마이크로바이옴 균주 발굴 등 연구개발과 임상시험, 제품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또 2030년까지 1226억 원을 투입, 차

세대 의료기기 유지보리터지센터와 정밀의료 융합기술연구원 등 설치를 골자로 미래 의료신산업 클러스터도 구축한다.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사업은 서천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일원에 해양바이오 연구 인프라를 확충하고, 기업 육성과 인적 자원 양성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투입 사업비는 2030년까지 2928억 원이다.

수소 기반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구축은 당진시 일원에 ▲통합에너지 그리드 실증도시 구축 ▲수소 기반 국가 혁신클러스터 구축 ▲신재생에너지 복합발전단지 조성 등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이며, 투입 사업비는 4조 4355억 원이다.

충남 실감콘텐츠 R&BD(사업화 연계 기술 개발) 클러스터 구축은 KTX 천안아산역 일원에 2024년까지 556억

원을 들여 콘텐츠 분야 지원 기관 집적화 기반을 구축하고, 콘텐츠 기업을 육성하는 내용의 과제다.

해양 생태자원을 활용한 해양신산업 육성 과제는 ▲충남형 해양치유 서해안벨트 구축 ▲충남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부남호 역간척을 통한 해양생태도시 조성 ▲구 장항제련소 국제적 생태관광지 조성 등을 세부 사업으로 담았다.

10대 전략산업과제 추진을 위한 연도별 투입 예산은 지난해까지 1389억 원, 올해 2633억 원, 내년 5747억 원, 2022년 8166억 원, 2023년 이후 6조 414억 원이다.

도는 이번 전략산업과제에 대한 실행력 담보를 위해 5개 TF로 추진단(단장 행정부지사)을 구성·운영키로 했으며, 정기 보고회 등을 통해 추진 상황을 점검·환류할 예정이다.

●정책기획관 041-635-3125

인구절벽에 맞선 충남의 '골기', 미래가 온다

도정 톨아보기

전국 소멸위험 42%처해

신성장 10대 과제로 위기 극복

서해바다 혁신은 충남의 新골기

“하나의 유령이 대한민국을 배회하고 있다-인구절벽이라는 유령이”. 인구절벽은 실로 수많은 사회적 모순을 포함하고 있다.

청년실업과 혐오와 차별, 비정규직, 경단녀, 노인 빈곤이라는 '헬조선'이 거리를 맴돈다. 차별과 소득 양극화, 고용불안과 저출산, 고령화로 이어진 모순의 사슬. 그리고 인구절벽이라는 막다른 골목. 전국

225개 시군구 중 소멸 위험지역은 전체의 42.5%에 달했다.

충남은 지방소멸위험지수가 0.63으로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12위로 매우 낮은 단계에 속한다. 충남 남부 지역 시군 상당수는 사망인구가 출생인구의 두 세배가 넘는 인구소멸에 비명을 지르고 있다. 엄중한 지방소멸의 실재다. 위기 모면전략은 면밀하다.

충남은 대한민국의 퍼스트 핑클을 자처한다. 전국 최초는 이제 익숙하다. 아동수당과 고교무상급식은 전국 최초 실시, 과격적인 청년 행복 양극화, 고용불안과 저출산, 고령화로 이어진 모순의 사슬. 그리고 인구절벽이라는 막다른 골목. 전국

형'으로 통한다.

신년 양승조 충남지사가 발표한 미래 10년의 성장 동력 육성은 그 자체가 충남의 미래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다. 인구절벽의 '막힌 골목'의 개척이다. 강한 성장은 탄탄한 복지를 제공한다. 내용은 혁신과 첨단을 지향한다. 미래자동차와 바이오, 수소 등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신성장 산업이다. 규모는 7조 8300억 원. 미래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과 차세대 디스플레이산업 육성 등 충남의 전통 성장산업을 키우고 바이오와, 수소 에너지산업, 실감콘텐츠 산업은 첨단산업을 확장한다.

또 해양생태자원을 활용한 해양신

산업 육성과 국방산업 클러스터, 금강권 역사문화관광 플랫폼 구축, 천안아산 KTX역세권 R&D지구 조성, 제조혁신파크 조성 등 융복합적이며 친환경적이다.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10개 과제다. 10년 내 성과 창출이 가능한 피드백 효과도 빠르다. 장밋빛 사진이 아니다.

더 놀라운 건 서해바다 혁신이다. 해양 생태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산업, 가로림만 해양정원, 부남호 역간척, 옛 장항제련소 국제 생태관광지 조성은 가슴을 뛰게 한다. 산업화 과정에서 생긴 서해바다의 상처와 아픔을 승화시키는 감화다. 이것이 충남 新골기다.

/이찬선 chansun21@korea.kr

알림

충남도정신문이 2020년 경자년을 맞아 한층 새로워진 지면으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먼저 생생한 도·의정 소식을 다양한 기획기사로 전달합니다. 도민 맞춤형 정보 제공에 방점을 둔 분야별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또 더 행복한 소상공인, 세상 놀이 한마당 따로 또 같이, 충남 연구원 현장 이야기 등 새로운 연재 코너를 강화했습니다.

도민 삶의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할 뿐만 아니라, 도민의 목소리에 한층 더 귀 기울이겠습니다.

충남도정신문



“도민 행복·충남 미래 위해 힘 모으자”

이우성 문체부지사 취임

시무식서 도정 비전 공유

‘가장 청렴한 지방정부’ 약속

충남도가 지난 2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2020년 시무식을 열고, “8대 핵심과제를 심화·발전시키면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2020년을 만들자”고 다짐했다.

새해 도의 비전과 희망을 공유하고, 힘찬 새 출발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한 이날 시무식은 특별공연과 간부 공무원 청렴 서약, 도정비전 홀로그램 퍼포먼스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충남도는 그동안 추진해 온 저출산·고령화·양극화의 위기 극복을 위한 각 분야 다양한 과제들이 도민의 실질적인 삶과 행복으로 이어지도록 세부 사업들을 차근차근 풀면서 가시적인 성

과를 만들어가겠다는 새해 각오를 밝혔다.

이를 위해 저출산·고령화·사회양극화 등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도민 행복과 충남의 미래를 위해 힘과 지혜를 모으는 한편, 충남의 장기 과제를 더욱 세밀하게 살피면서 미래 10년을 좌우할 전략과제 추진에 전념하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국에서 가장 청렴한 지방정부 실현을 위해 목표의식을 공유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하고자, ‘2020년 간부공무원 청렴서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간부공무원 등이 서명한 서약서의 주요 내용은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부패를 예방함으로써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솔선수범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또한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하며, 업무수행과정에서 부당한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직위를 이용한 지위·권한 남용, 이권개입, 알선·청탁 등 청렴성에 의심되는 행동을 금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끝으로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철저히 배제함으로써 조직 구성원들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 “2020년에는 도민이 직접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가 전국에서 가장 청렴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경주하겠다”라며, “이를 위해 도민과 함께 적극적인 민관협력 청렴 거버넌스를 구축·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운영지원과·감사과 041-635-3503·5431

문화·체육 현안 추진 책임자

14일 취임후 공식업무 돌입



문화·예술 분야 도정성과 창출과 충남의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과제 발굴에 집중할 계획이다.

민선7기 충남도 두 번째 문화체육부지사로 이우성(사진) 전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이 취임했다.

이 부지사는 30여 년 간 중앙부처에서 일해 온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전문가로, 충남도는 이 부지사가 “지방정부와 중앙부처 간 가교 역할은 물론, 자치분권 강화 등 현 정부의 기조에 부응하는 정책 추진을 이끌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부지사는 문체부에 근무하며 쌓아 온 정치·종교·문화·예술계 등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충남도정의 정무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물론,

또 도민 소통, 도정 홍보를 위한 언론기관 협력 등 대외 정책 지원 활동에도 힘을 기울일 예정이다.

제32회 행정고시를 통해 1989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직을 시작한 이 부지사는 2009년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명돼 종무실장, 문화예술정책실장, 문화콘텐츠산업실장, 국제관광정책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이 부지사는 지난 14일자로 임명을 받은 후 별도 취임 행사 없이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인사과 041-635-3523

도정만평

설인호



상록수림 품은 충남의 보배

충남이 품은 섬 이야기

① 보령 외연도

안개에 가린 듯 아득한 섬

육지에서 가장 먼 서해 고도

외연도는 1.53km²의 규모로, 인구는 190가구 393명이 거주하며 해안선 길이는 8.7km에 이른다. 최고 점은 봉화산(279m)이다. 지명 유래를 보면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안개에 가린 듯 까마득하게 보인다고 하여 외연도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하루에 두 번 운행하는 쾌속선인 웨스트프론티어호를 타고 대천항을 떠난 지 1시간 30여 분, 짙은 해무가 온통 바다를 삼킨 가운데 멀리 우뚝 솟은 외연도의 절경이 아스라이 보인다.

파도막이 섬 외연도는 보령시에 소속된 섬으로, 90개의 섬들 중 육지에서 가장 먼 거리에 떨어진 서해의 고도다. 육지와 멀리 떨어진 관계로 접근성이 어렵고 겨울에는 거친 파도 때문에 마치 유배지와 같이 변한다.

반대로 먼 바다에서 조업을 하는 어선들 입장에서 보면 가장 먼저 닿는 땅이 된다. 전통어선 시절에는 서해 어업 전진기지도 해마다 파시가 열리기도 했다. 동력선 출현해 여건이 변하고 여획량이 예전만 못하지만, 여전히 충남에서 가장 청정한 해역으로 수산업이 잘 된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학교가 폐교되지 않았고 젊은

이들이 동지를 틀고 살아간다.

외연도의 유적으로는 중국 제나라가 멸망할 당시 500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곳에 정착했다는 전횡 장군의 사당이 남아 있다. 지금도 매년 전횡 장군을 추모하면서 풍어제와 함께 제례를 지낸다.

외연도는 맨 바깥섬인 관계로, 1846년 프랑스의 세실 해군소장이 조선에서 천주교를 탄압한다는 구실로 군함 3척 이끌고 외연도에 정박하며 왕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한 기록이 전한다.

당산은 마을 풍어제의 주무대다. 매년 음력 정월 대보름이면 마을 주민이 모여 풍어와 안전을 위해 당제를 지내고 띠배를 만들어 마을 앞바다에 띄우는 ‘풍어당놀이’가 오늘날까지 전승되고 있다. 역사가 벌써 400여 년이나 됐다.

외연도의 당산 기슭의 상록수림은 천연기념물(제136호)로 지정된 곳이다. 일단 숲 안으로 들어가면 하늘 한 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수목들로 가득 차 있다. 봉화산으로 올라가는 등산로는 산 중턱까지 산행을 수월하게 만들어 놓았다. 외연도 봉화는 고려 의종 3년(1149년)에 금과 남송의 침입을 서울로 알리기 위해 축조된 것으로 전해진다.

외연도 섬은 다섯 곳이나 있다. 위낙 산림이 울창하여 물 걱정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외연도 근해에는 자연산 돌김과 미역, 굴, 멸치, 전복, 해삼 등이 잘 잡힌다.

/이재연 목포대학교 연구원

취약계층 ‘주거복지’ 한 단계 UP

중위소득 45%까지 주거급여 확대 가구당 700만원 주택 개·보수 지원

충남도가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주거급여를 확대·지원하고 노후 불량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취약계층 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 등을 지원하는 주거급여 대상이 올해부터 기준중위소득 44%에서 45%까지 확

대되며, 임차료는 2019년 대비 7~9%, 수선유지급여는 21% 인상에 지원한다.

임차급여는 가구소득인정액·가구원 수별로 기준임대료 내에서 지원되며, 1인 가구 15만 8000원부터 6인 가구 29만 1000원까지 현금으로 지원된다. 자가 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3년 주기 45만원, 중보수 5년 주기 84만원, 대보수 7년 주기 1241만원으로 구분, 보수업체를 선정해 주택 수선을 지원된다.

또 이와는 별도로 노후 주택으로 불편을 겪는 농어촌 장애인과 고령자에게 개·보수를 통한 편의시설과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농어촌장애인·고령자 주택 주거환경개선 사업도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차상위계층 이하로, 농어촌장애인 등록장애인 가구와 65세 이상 노인 가구이다. 우선 선정 대상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80세 이상 자립생활이 가능한 노인이다. 임차 주택의 경우 소유자의 동의를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건축도시과 041-635-4655

도민과 함께하는 ‘2040 미래 전략’ 충남 종합계획 도민참여단 위촉

충남도가 오는 2040년까지의 비전과 미래 전략을 도민과 함께 구상한다. 도는 지난 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2021~2040) 도민참여단’을 위촉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위촉한 도민참여단은 도민계획

단 100명과 청소년계획단 15명으로 구성했다. 도민계획단은 ▲소외계층 6명 ▲도내 15개 시·군별 추천인 60명 ▲공모 선발 인원 34명 등이며, 청소년 계획단은 시·군별로 중·고교생을 1명씩 추천받았다.

이번 도민참여단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상향식 계획 수립을 목표로 제4차도 종합계획에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코자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방침이다.

도민참여단은 ▲정주환경·인프라 ▲

농어업·농어촌 ▲경제·일자리 ▲문화·관광 ▲복지·안전 ▲환경·에너지 ▲청소년 등 총 7개 분과로 구성했으며, 제4차도 종합계획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 역할을 맡는다. 또 분임 활동을 통해 ▲도 종합계획에 대한 이해도 향상 ▲핵심 가치 모색 ▲지속가능한 미래 정책 방향 도출 ▲실천 가능한 주민실천지표 발굴 등의 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균형발전담당관 041-635-3202



외연열도 전경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 깨끗한 환경·안전한 먹거리 수호

2020년 새롭게 달라지는 충청남도 제도와 시책

충남도가 민선 7기 반환점을 도는 경자년(庚子年) 새해를 맞아, 도정 8대 핵심과제를 더욱 심화·발전시키고 미래성장 전략 추진에 집중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행복키움수당 확대,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공급,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규 지원, 미세먼지 체계적 대응,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도입 등 2020년도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들어가기 위한 충남도의 제도와 시책을 소개한다.

도민행복·미래성장 '방점'

"8대 핵심과제 심화·발전시켜"

새로운 미래 준비하는 해로

충남도가 민선7기 반환점을 도는 올해, 도정 8대 핵심과제를 심화·발전시키고, 미래성장 전략 추진에 집중키로 했다.

충남도는 도민과 함께 이룬 지난해 성과로 ▲도정 8대 핵심과제 정립 및 역점 추진 ▲일 잘하는 지방정부 ▲대통령 전국경제투어 성공적 개최 ▲청렴도 상위권 회복 등을 꼽았다.

구체적으로는 ▲행복키움수당 확대 지원 ▲충남아이키움돌 운영 ▲공공립 어린이집 확충 ▲3대 무상교육 실시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 ▲더 행복한 주택 ▲충남복지재단 출범 ▲장애인 콜택시 광역이동지원센터 구축 ▲도민 안전보험 ▲유관순 열사 서훈 상향 ▲여성권익보호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제시했다.

또 ▲국내 기업 692개사 3조 6746억 원 유치(11월 말 기준) ▲글로벌 외투 기업 15개사 9억 2200만 달러 유치 ▲4대 사회보험료 지원 ▲충남 창업마루 나비 개소 ▲충남 경제발전전략 마련 ▲자동차산업 위축 및 일본 수출규제 대응 ▲천안아산 KTX 역세권 R&D 집적지구 조성 추진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센터 유치 및 건립 추진 등도 성과로 내놨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 ▲도립미술관·3.1평화운동 백년의 집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추진 ▲안면도 관광지 3지구 분계약 체결 ▲논산 돈암서원 세계유산 등재 ▲보령화력 1·2호기 조기 폐쇄 확정 ▲혁신도시법 개정 공포에 따른 지역 인재 채용 역차별 해소 ▲항공보안장비 시험 인증센터 유치 ▲농산물 유통 확대 등도 2019년의 성과로 꺼내들었다.

●정책기획관 041-635-3111

■ 따뜻하고 안전한 공동체

행복키움수당 지원 확대

노인·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 배려

누구나 안전·건강한 삶 보장

▲국가안전대진단(사회재난과 635-

3281) - 점검결과 전면 공개·사후관리 강화,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 구축 운영

▲소상공인 풍수해 보험(자연재난과 635-3256) - 15개 시·군 소상공인 가입 가능, 국비 지원 50%

▲어린이집 지원체계 개편(출산보육정책과 635-4540) - 연장보육 과정 신설, 연장반 전담교차 배치, 연장보육료 지원, 자동전자시스템 출결 관리

▲행복키움수당 지원대상 확대(출산보육정책과 635-4547) - 만 36개월 미만 아동 대상 월 10만원 지급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출산보육정책과 635-4546) - 조사(시·군 공무원)·사례관리(아동보호전문기관) 기능 분리, 도내 4개소+전담 공무원 28명 배치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입소가정 의료비 지원(여성가족정책관 635-2044) - 모자(母子) 건강위해 필요한 의료비(입원, 예방접종비 등) 추가 지원

▲수급자 최저보장 수준 확대(사회복지과 635-4245) - 중위소득 4인 기준 474.9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노인복지과 635-2622) - 공익활동사업 기간·경비 확대, 사회서비스형 일부 자격 완화, 시장형 1인 지원액 267만원 확대, 취업알선형 신설, 노인일자리 담당자 인건비 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행(노인복지과 635-4222) - 유사 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 식재료 현물 차액 지원(농식품유통과 635-4162-4167) - 도내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 식재료 현물 차액 지원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지원(교통정책과 635-4564) - 75세 이상 도민, 유공자 및 유족, 장애인

▲임산부 119 구급이송서비스 대상 확대(119광역기동단 635-5733) - 분만 의료취약지역 임산부→도내 전 지역 임산부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보건환경연구원 635-6820) - 5군 80종→4급 86종(심각도·전파력·격리 수준 고려한 급별 분류)

▲영·유아를 섭취 대상으로 표시·판매하는 식품의 검사항목 확대(보건환경연구원 635-6830) - 바실러스세레우스, 크로노박터 신설

■ 풍요롭고 쾌적한 삶

대기오염물질 배출 강화

가축분뇨 퇴비 기준 마련

'깨끗하고 청정한' 환경 수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기후환경정책과 635-2713)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기준 강화(환경보전과 635-4445) - 대기오염 배출시설 37개 분류, 국가 배출허용기준 평균 30% 강화

▲대기관리구역 전국 확대(환경보전과 635-4441) - 도내 14개 시·군 해당(금산군 제외)

▲TMS(배출오염물질 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 실시간 공개(환경보전과 635-2723) - 측정결과 실시간·주기적 공개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물관리정책과·축산과 635-2732-4105) - 부숙도 기준에 적합한 퇴비만 살포 가능, 사육규모별 부숙도 검사 실시 및 결과 보관(3년)

▲대기배출 허용기준 항목 확대(보건환경연구원 635-6870) - 허용기준 8종 신설(항목 29→37종)

■ 활력이 넘치는 경제

우수 중소기업 집중육성

소상공인 명장 직접 지원해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다져

▲상공회의소 지원(경제정책과 635-3315) - 도내 상공회의소 각종 사업 지원

▲사회적경제 금융교육 컨설팅 실시(경제정책과 635-3311) - 사회적금융 전문가 양성 및 사회적경제기업 금융 컨설팅

▲충남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원(경제정책과 635-3320) - 6개 내외 공유단체·기업 선정 후 사업아·컨설팅 비용 등 지원

▲충청남도 명장 선정(일자리노동청년과 635-3419) - 숙련기술자 분야별 1명씩 5명 이내 선정(명장 증서, 명패 수여, 기술장려금 1200만원 지급)

▲고용창출 우수기업 지원(일자리노동청년과 635-3417-2241) - 10개 기업 근로환경개선금 23,000천원 지원, 장애인 고용 기업 고용환경개선금 10,000천원 지원

▲충남형 챔피언 기업 육성(소상공기업과 635-3439) - 중기부의 '글로벌 강소기업' 진입 가능한 예비 기업(4개사) 발굴 지원(총 1억원)

▲(예비)월드클래스 플러스 기업 육성사업(635-3439) - 산업부의 '월드클래스+' 기업 진입 가능한 예비 기업(3개사) 발굴 지원(총 2억원)

▲중소기업 유튜브 동영상 제작지원(소상공기업과 635-3439) - 홍보 극대화를 위한 전략적인 온라인 마케팅 지원(20개사, 총 2억원)

▲중소기업 기술 사업화 지원(소상공기업과 635-3439) - 자금력 취약한 중소기업(15개사) 발굴 지원(총 2.9억원)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소상공기업과 635-3443)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일부(700명) 지원(총 1.5억원)

▲해외통상사무소 운영(국제통상과 635-3360) - 베트남(하노이), 인도(뉴델리)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중소기업 에너지 진단 및 시설개선 지원(에너지과 635-3458) - 에너지진단(20개 기업), 시설진단(10개 기업) 지원

■ 고르게 발전하는 터전

여성·고령농업인 지원 늘리고

농수산 종사자 생활 안정 도모

'차별없이 고르게 잘사는' 충남

▲여성농업인 행복카드 지원 대상 확대(농업정책과 635-2512) - 지원 상한선 상향(만 20세 이상~만 73세 미만→만 20세 이상~만 75세 이하)

▲유전형 자조금 도입(농식품유통과 635-4165) - 딸기를 시범품목으로 하여 자조금을 도입, 수급 조절 및 가격 안정 등 자립체계 구축

▲농작업 지원단 육성·운영(식량원예과 635-4041) - 지원 조건 완화(65세 이상, 1ha 경작 면적 이하)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제(식량원예과 635-4050) - 대상품목 13개(시·군 중복 제외), 농가한도 1ha(시설 0.5ha)·300만원

▲인삼 안전성 관리 강화(식량원예과 635-7742) - 안전성 확보 단계별 컬러박스 유통(녹색: GAP 인삼) 황색: 안전성 검사) 흰색: 생산자 실명 참여

▲가금·가금산물 이력제 시행(축산과 635-2544) - 사육·유통 단계서 닭·오리·계란 거래 정보 기록·관리

▲식용란선별포장업 의무화 본격 시행(동물방역위생과 635-2554) - 가정용 달걀 반드시 식용란 선별·포장 처리 거쳐 판매

▲적정공사비 산출을 위한 충남도 설계 기준 마련·시행(건설정책과 635-4624) - 공공 건설공사의 적정공사비 산출기준 마련으로 안전한 건설환경 유도

▲슬레이트 처리사업 지원비 확대(건축도시과 635-2824) - 철거사업 지원비 1동 344만원, 지붕개량사업 지원비 1동 427만원, 소규모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사업 지원비 1동 172만원 등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물제 단가 상향(수산자원과 635-2773) - 어가당 65만원→어가당 70만원

■ 도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정부

시내버스 와이파이 켜고

카톡으로 여권업무 상담

도민중심 서비스 강화

▲시내버스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 제공(정보화담당관 635-3720) - 도내 전 시내버스(1,116대)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 사이버 교육 확대(안전정책과 635-5628) - 도내 15개 시·군 전체

▲여권업무 카카오톡 서비스 실시(자치행정과 635-3687) - 카카오톡을 통한 충남형 여권 핫बाट담 서비스 실시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통합시스템 구축(자치행정과 635-3687)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이용요금 즉시 감면

▲내포 수소충전소 운영시간 확대(에너지과 635-2934) - 평일·토요일·공휴일 8-20시

▲부동산거래 신고기한 단축(토지관리과 635-4794) - 부동산 거래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신고 의무

/정리 손유진 syj0319@korea.kr

현장에서 답을 찾다, '정책-현장'의 선순환

2020년

충남연구원 현장이야기

①연구회 활동을 중심으로

충남연구원은 '도민이 더 행복한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싱크탱크'라는 비전 아래 도민행복과 지역발전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다. 우리 연구원이 가지는 강점 중 하나는 지역의 현장에서 직접 보고

겪은 것을 정책에 제안하고 다시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과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일 것이다. 이 가운데 '연구회' 활동은 원내 연구자는 물론, 지역 활동가나 외부 전문가 등과 연계하여 토론회나 세미나, 포럼 등을 다양하고도 자유롭게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 현장과의 소통을 위한 장(場)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홍성군 홍동마을의 유기농업을 시작으로 귀농귀촌, 청년농업

인, 사회적 농업 연구 등을 해오고 있다. 그 과정에서 지역 농민을 비롯하여 지역 주민과 활동가를 만나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연구를 지향해 왔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살려 농촌 현장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연구자와 농촌활동가, 주민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2017년부터 농촌현장연구회 활동을 맡아 왔다. 지역에서는 홍성군 홍동과 장곡을 중

심으로 현장에서 논의하고 학습해 가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마을학회 일소공도'가 함께하고 있다.

지난 3년간 많은 분들을 모시고 귀한 자리를 가졌다. 2017년에는 마을학회 창립 기념과 함께 현장 연구의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농촌정책, 생물다양성 국제 세미나, 제1차 청년 컨퍼런스 '여럿이 농사' 세미나를 진행했고, 2018년에는 리빙랩과 농업환경보전정책, 친환경농업 직불제, 제2차 청년 컨퍼런스 '청년농부의 탄생'을 추진해 왔다.

작년에는 도의회 복지보건 연구모

임과 마을복지 실천과 지역복지정책을 다루었고, 일본의 집락영농 사례를 중심으로 한 마을농업, 농지문제, 제3차 청년 컨퍼런스(더불어 바람)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 농업농촌 분야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 정답을 찾기는 쉽지 않지만,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논의를 통해 얻어낸 작은 아이디어들은 내일 조금 더 나은 지역을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2020년 농촌현장연구회 활동을 준비해가고자 한다.

/김기홍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수소경제기반·게임인재·아이디어 창업가..충남에 '쑥쑥'

FCEV부품시험평가센터로

'수소경제사회' 선도하고

충남글로벌게임센터는

청년 창업·일자리 책임져

혁신창업공간·C-Station

'창업하기 좋은 충남' 거점으로



FCEV부품시험평가센터 전경(좌), 충남글로벌게임센터 개소식 모습(우)



지역 맞춤형 특화산업 및 신산업 발굴·육성을 위한 충남도의 노력이 FCEV부품시험평가센터와 충남글로벌게임센터 개소로 또 한 번 결실을 이뤘다. 이와 함께 전국에서 가장 창업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추진 중인 창업 기반시설 조성 사업이 올해 정부예산에 반영되며 창업 인프라 조성도 가시권에 들었다.

지난달 19일 예산군 예산읍 충남 TP 자동차센터 내에 '수소연료전지차(FCEV) 부품시험평가센터'가 동지를 틀고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총 사업비 261억 원을 들여 연면적 2068㎡ 규모(지하·지상 1층)로 조성된 FCEV센터에는 수소공급 장치와 합

계 시료 보관 및 시험 준비실, 수소 가스 관리실 등이 들어서며, 시험평가 관련 연구 장비 20여대가 구축될 예정이다. FCEV부품센터의 핵심목표는 관련된 기술개발지원과 개발부품의 시험 및 평가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다.

무엇보다 FCEV 부품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비용부담을 줄여 수소전기차 활성화를 앞당기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센터는 향후 스택(Stack), 운전·저장장치 등 수소차 핵심부품에 대한 성능·내구성 시험을 통해 수소차 핵심기술을 검증하고, 관련기업에 부품평가 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이튿날인 20일에는 지역 기반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기구인 충남글로벌게임센터가 아산시 배방읍 KTX 천안아산역 인근에 문을 열었다.

총 429㎡ 규모에 기업 입주 공간과 회의실, 네트워크 공간 등으로 구성된 게임센터는 지난해 1월 문화체육관광부 '지역글로벌게임센터'에 충남이 신규 지정되며 설치를 추진한 결과다.

게임센터는 앞으로 게임 분야 창업 기업이나 강소기업을 입주시켜 세계 게임시장 진출을 위한 신규 게임 개발, 기술 고도화 지원, 맞춤형 마케팅 지원 사업 등을 편다. 또 청

년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대학 인재가 지역 내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지난 해 인프라 구축과 게임기업 유치를 마치고, 올해부터는 게임 스타트업 창업지원, 지역산업 연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021년부터는 투자펀드를 조성해 충남 특화사업으로 정착시키고, 2022년에는 지역 스타 게임기업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2023년부터 2028년까지는 선도 모델 구축, 지속가능한 지역 게임산업 생태계 다양화 사업 등을 추진, 게임산업을 새로운 지역특화 산업으로 만들어 간다는 각오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기반 시설 조성사업도 탄력을 얻을 전망이다.

올해 정부예산에 내포 혁신창업공간 조성사업과 스타트업 파크 'Station' 조성사업 예산이 각각 10억 원과 5억 원씩 반영됐기 때문이다.

내포혁신창업공간은 내포신도시 내에 건립 중인 자동차 대체 부품 인증센터와 연계한 전략적 창업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는 내포 혁신창업공간 조성을 위한 투자심사 등 각종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하반기부터 설계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스타트업 파크 'Station'은 KTX 천안아산역 유휴 공간 12만 6105㎡를 활용해 조성을 추진 중으로,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개방형 혁신 창업 공간이다. 특히 창업자와 투자자, 대학 등이 열린 공간에서 교류·협력할 수 있다.

충남도는 FCEV센터를 통해 대한민국 수소경제사회를 선도할 뿐만 아니라, 게임산업 육성·지원과 특화된 아이디어를 지닌 창업기업 육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손유진 syj0319@korea.kr

'가로림만 해상교량' 청신호 밝혔다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
서해안 신 관광벨트 '화룡점정'
이원~대산 국도 건설도 포함

충남 서해안 신 관광벨트의 '화룡점정'이 될 '가로림만 해상교량' 건설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도는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대상 사업안에 태안 이원~서산 대산 간 국도 건설 등 23개 사업이 반영됐다고 지난 7일 밝혔다.

5차 계획 대상 사업안에 반영된 도내 23개 사업은 총 연장 193.79km에 사업비는 3조 474억 원 규모다. 유형별로는 국도 11개 노선 75.87km 1조 698억 원, 국도 대체 우회도로 5개 노선 52.2km 1조 435.8억 원, 국지도 7개 노선

65.72km 5418억 원 등이다.

이번 반영 노선 가운데 태안 이원~서산 대산 국도는 민선7기 공약으로 중점 추진해 온 데다, 서해안 신 관광벨트를 완성할 마지막 퍼즐과도 같은 사업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가로림만 초입 만대항에서 독곶리까지 2.5km 규모의 해상교량을 포함하고 있는 이 사업은 총 5.61km로, 사업비는 2983억 원이다.

도는 태안 이원~서산 대산 국도 건설 사업이 완료되면, 이동 거리는 70km에서 2.5km로, 시간은 1시간 50분에서 3분 안팎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만대항~독곶리 해상교량은 또 최근 개통한 원산안면대교, 내년 개통할 해저터널과 함께 충남 서해 관광 활성화를 견인할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

태안 이원~서산 대산 국도와 함께 이번 국토부안에 포함된 사업으로는 ▲보령 주산~웅천 4차로 확장 10.99km 1730억 원 ▲당진 채운~송악 4차로 신설 10.78km 1727억 원 등이 있다.

●도로철도항공과 041-635-4674



가로림만 전경

'하이베리' 단점은 ↓ 적응력은 ↑

출회시기·전염병 보완해
고품질·다수확 딸기로

충남도 농업기술원이 자체 개발한 딸기 신품종 '하이베리' (사진)의 적응성을 살펴보고, 재배기술을 보완하기 위한 현장평가를 추진했다. 도농기원 딸기연구소는 지난 10일 공주시 계룡면 딸기 재배농가에서 신품종 딸기 '하이베리 현장평가회'를 개최했다.

하이베리는 과실 모양이 좋고, 당도·경도·향 등이 우수해 내수와 수출 모두 가능성이 높은 품종으로 평가 받았다. 지난 2018년 품종 출원한 하이베리는 선홍색의 원추형 과실로, 경도가 15.3g/㎢에 달해 설향(10.6g/㎢)보다 단단하고 당도는 10.1브릭스로 설향(9.5브릭스)보다 높다. 또 맛이 새콤달콤하고 특유의 향이 있어 수출용 품종으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이번 평가회에서는 1화방 출회(꽃대 출현)가 설향보다 7일 정도 늦고, 시들음병과 흰가루병에 다소 취약한 점이 보완해야 할 점으로 꼽혔다.

도농기원 딸기연구소 이인하 연구사는 "품종 등록이 완료되는 올해 11월부터 농가 적응성 판단을 위해서 희망 농가를 선별해 시험용 묘를 보급할 계획"이라며, "현장평가회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 고품질 딸기를 다수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축도시과 041-635-4660

작년 충남 외자유치 실적 비수도권 독보적 '1위'

2위 울산과 5배가량 차이 '우뚱'
2020년 소·부·장 중심 유치 전력

충남도 외자유치 실적이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도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외국인직접투자(FDI) 동향을 집계한 결과, 서울·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가운데 충남이 외자유치실적 1위를 기록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투자 기업의 신고금액은 16억 5340만 달러(39건)로, 2018년 7억 4175만 달러(45건)

보다 123% 증가했다.

도가 도착(투자)금액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7억 5320만 달러(34업체)로 신고금액을 넘어섰다. 2018년 2억 4913만 달러(25업체)에 비하면 604% 증가한 수치이기도 하다.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도착금액을 살펴보면 1위인 충남과 2위인 울산시의 격차는 5배가량 차이를 보였다. 실제 울산시 3억 5300만 달러, 제주도 3억 1400만 달러, 인천시 2억 400만 달러, 경북도 1억 1500만 달러 순이었다.

서울 등 수도권에 대부분 외투자기업 본사가 있는 점, 투자 금액 신고 시

실적이 본사에 잡히는 것을 고려할 때 충남의 실적은 사실상 전국 1위라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가 하락 추세인 데 반해 도의 실적이 높은 데에는 외투자기업 유치뿐만 아니라 고충처리 등 사후관리까지 행정적 지원이 아끼지 않은 덕분이다.

도는 향후 도내 사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바이오와 AI, 5G, 반도체 전자 부품 등 대상 기업을 설정, 국내산업의 근간이 되는 소재·부품·장비산업 유치에 전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투자입지과 041-635-3393

화인에프티·코닝정밀소재
가족친화 우수기업 '표창'

충남도는 최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한 도내 기업체 2곳을 '가족친화 우수기업'에 선정,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시상은 가족친화인증 기업 가운데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공모해 도 자체 심사를 거쳐 선정했다.

이번에 가족친화 우수기업 도지사 표창을 받은 기업체는 ▲화인에프티 ▲코닝정밀소재 2곳이다. 이번 심사에서는 이들 기업이 그동안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출산 장려 및 일·가

정 양립 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기업 내 '가족 사랑의 날'과 가족 참여 프로그램 등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해 온 점을 높게 평가했다.

가족친화 우수기업 표창에 선정된 기업에게는 세무조사 3년간 면제 혜택을 부여한다.

또 도에서는 ▲충남신용보증재단 보증수수료 할인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 평가 시 우대 ▲소셜커머스 입점 지원 ▲지역 축제 연계 판매전 참가 지원 ▲충청권 중소·벤처기업 박람회 참가 우대 ▲티피(TP) 단지 입주 선정 평가 시 우대 등 자체 인센티브를 제공해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여성가족정책관 041-635-4986

사랑 통큰이벤트

농사랑 상품으로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이벤트기간 2020.1.6 ~ 2020.2.2



[아침농원] 폴리페놀 혼합세트3호
5.5kg(배6개+사과4개)
[무료배송] **50,200원**



[소성농원] 황금향2호/3kg
(11개~13개)+보자기 포장
[무료배송] **41,500원**



[부여버섯영농조합] 표고버섯 선물용
350g(칩/슬라이스/통버섯)
[무료배송] **29,100원**



[부여대봉곶감] 대봉곶감 20개
개당 80g내외
[무료배송] **44,000원**



[해저식품] 명품 선물세트6호
명품캔 30gx6캔
[무료배송] **26,500원**



[광천우리맛김] 제례식탁김
15봉
[무료배송] **11,900원**



[씨푸드월드] 멸치3종세트(특)
800g(소멸/중멸/건새우)
[무료배송] **40,800원**



[식약동원] 광주리호 선물세트
(청대5봉+뱅어포5봉)
[무료배송] **58,100원**



[서천시장협동조합] 조미가루
선물세트 1호(멸치/새우/표고)
[무료배송] **23,000원**



[계룡산한과] 명절 선물세트3호
(유과/약과/강정)
[무료배송] **35,000원**



[한우드소] 종합2호/1.2kg
(불고기/불고기/국거리/장조림)각400g
[무료배송] **80,500원**



[아산풍성한] 선물세트1호/2kg
(오색떡국떡x2개+흰떡국떡x2개)각500g
[무료배송] **20,300원**



[백석올미] 올미약과 400g
20gx20개
[무료배송] **18,200원**



[기운전] 복합버섯군사체 분말
60g(2gx30포) 2박스
[무료배송] **250,000원**



[정성농장] 순한홍삼액
90mlx30포
[무료배송] **33,700원**



농사랑 회원혜택 30만원 이상 구매시 15% 할인 | 고객센터 전화번호 041-425-2025

검색창에서 농사랑을 검색해주세요!



행복키움수당, 2019년을 빛낸 도정시책

유관순 열사 서훈 등급상향 등
‘충남도정 10대 시책’ 선정



충남도는 지난달 18일, 2019년 충남도정을 빛낸 10개 시책을 선정, 발표했다. 도정을 빛낸 시책은 간부 공무원 의견 수렴을 통해 선정한 23개 후보 사업 중 전문가 평가 및 도민 설문 조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선정 시책은 ▲행복키움수당 확대, 충남 아이키움플 운영 등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충남을 위한 도전’ ▲‘미래로 힘차게 도약하는 충남형 해양신산업’ 전략 마련 ▲보령화력 1·2호기 조기폐쇄를 확정된 ‘노후 석탄화력 조기폐쇄, 충남이 해냈다’ ▲맞춤형 응급처치, 안정적 이송 등 ‘분만의료 취약지역 입산부 119구급 서비스’ ▲공

주 마곡사(2018년), 논산 돈암서원(2019년) 등 ‘2년 연속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등이다.

또 ▲서훈등급 상향 청와대 국민청원운동 등 ‘유관순 열사 건국훈장 대

한민국장 수여’ ▲도정 최초 100만인 서명 달성 등 ‘충남혁신도시 지정 법안 통과(산업통상자원위 법안소위)’ ▲합동평가 역사상 최초 달성 ‘2년 연속 정부합동평가 1위, 전국에서 가장 일 잘하는 충청남도’ ▲공공부분 온실가스 감축실적 초과달성 등 ‘숨쉬기 좋은 푸른 하늘, 맑은 공기 충청남도가 앞장서 나갑니다’ ▲차별 없는 이동권 보장을 위한 ‘도내 7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 사업 시행’ 등도 도정을 빛낸 시책으로 뽑았다.

도 관계자는 “이번 선정 시책 추진 부서에는 도지사 표창 등을 통해 격려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을 위해 도정 각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정책팀 041-635-3106



대한독립만세 새기는 등불 ‘빛 밝히다’

충남도가 내포신도시 휴예공원에 여성 항일 독립운동가의 뜻을 기리는 항일독립운동여성상을 건립했다. 지난달 13일 휴예공원에서 공개한 여성상은 독립만세운동을 벌이기 전날, 한복을 입은 100년 전의 여성이 등불을 비추고 교복을 입은 오늘날의 여성이 독립선언서를 찍어내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배경으로 설치한 화강석 기둥에는 항일 여자독립선언문 전문과 공식 서훈을 받은 여성 독립운동가 472분의 이름을 새겼다.

●문화정책과 041-635-3825

한돈협회 등 돼지고기 10톤·쌀 180포 기탁

설 명절맞이 기부품 쇠도
“나눔 문화 선도에 감사”

대한한돈협회 충남도협회의, 대전충남양돈농협, 한국양곡가공협회가 도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돼지고기와 쌀을 쾌척했다.

충남도는 지난 13일 도청에서 도 관계자와 3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설 명절맞이 돼지고기 및 사랑의 쌀 전달식을 개최했다. 대한한돈협회 충남도협회의는 양돈산업 발전과 양돈인의 사

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기관으로, 이번 전달식을 통해 대전충남양돈농협과 함께 6000만 원 상당의 돼지고기 10톤과 고기만두 500박스를 기탁했다.

한국양곡가공협회는 양곡 관련 교육 및 쌀 고유 브랜드 정착, 농가 벼 매입 및 노후 도정시설 보완 등 양곡가공업의 획기적인 발전과 국가식량정책에 적극 기여하고 있는 단체로, 이날 400만 원 상당의 백미 180포(포당 10kg)를 전달했다.

도는 세 기관이 기탁한 이번 기부품을 도내 어려운 이웃들이 다가오는 설

명절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충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각종 복지사업에 활용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도내 단체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기탁한 돼지고기와 쌀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한돈협회 충남도협회의의 경우 지난해 2월, 8월, 12월 3회에 걸쳐 돼지고기 등 1억 9500만 원 상당의 기부를 진행해 온 바 있다.

●사회복지과 041-635-4254

사실주의 문학의 거두

충남의 근현대 문인들

①천안 민촌 이기영



고 있다.

이기영은 고향을 언급할 때면 천안을 떠올렸다. 1937년 월간지 ‘조광’ 5월호에서 그는 “출생지는 아산이지만 두세 살에 떠났기 때문에 천안을 고향으로 여긴다”라고 적고 있다.

농민문학의 거두, 민촌(民村) 이기영(李箕永)(사진)의 흔적을 찾는 일은 이제 어려워졌다. 그가 남긴 문학적 흔적은 상당했지만 그가 남긴 향토적 유산은 너무나 소루하기 때문이다.

그가 문학적 심상을 가다듬었던 천안의 유량동·안서동 일대에 그의 흔적들은 한동안 언저리마다에 남아 있었고, 그를 기억하는 몇몇 어른들도 자리했었다. 그러나 도시화의 바람 앞에서 희미하던 흔적들은 이제 거의 사라지고 구전으로만 떠도는 몇몇 이야기들과 그를 추모하는 문인들의 발길만이 쓸쓸함을 더할 뿐이다.

‘한국 경향소설의 대표작가 이기영’, 그의 문학적 성과가 여타 작가들을 압도하기 때문에 붙는 수식어다. 특히 장편소설 ‘고향’, ‘두만강’ 등을 포함한 문학적 성과는 당시 반봉건 사회현실을 밀도 있게 구현해 냈고, 프로문학의 이데올로기를 나름대로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학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

‘고향’은 1933년 11월부터 1934년 9월까지 ‘조선일보’에 연재되면서 농촌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천안지역 사회를 배경으로 근대화 과정의 과도기를 여과 없이 표출하였다.

천안에서 성장기를 보내던 시절 이기영의 삶은 빈곤했다. 그의 호가 민촌인 까닭도 당시 곤궁한 삶을 벗지 못했던 유량동 일대 마을에서 유래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 시절 경험은 북에서 쓴 ‘두만강’에서도 고스란히 배어난다. 비록 월북 작가로서 한 시대 그늘에 가려 빛을 받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분명한 것은 사상이나 인생행로가 아니라 그의 문학적 가치를 살펴 조명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정우 충남문인협회 회장

시·군 손 맞잡고 ‘자살예방’ 선도

자살예방 우수부서, 시·군 선정
우수사례 확산·발전 도모



충남도는 지난달 2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충청남도 자살예방 우수사례 평가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평가대회는 자살예방 추진 우수 부서 및 시·군을 격려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해 도내 확산코자 마련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올해 발굴·추진한 협업 과제 총 411건을 대상으로 목표달성도, 활용·전파 가능성, 연계·협력성 등을 심사하는 1차 평가와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을 포함한 2차 평가를 거쳐 우수부서 및 시·군을 선정했다.

도는 평가 결과를 종합해 도 우수부서로 화재대책과(S등급)와 공보관·자치행정과·교육기획과(A등급)를

지난달 26일 개최된 ‘충청남도 자살예방 우수사례 평가대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선정했다. 특히 도 화재대책과는 의용소방대원 게이트키퍼 양성, 자살고위험군 멘토링, 마을담담제 연계 자살예방사업 등 ‘자살률 저감을 위한 의용소방대 중심의 소방활동 강화’ 협업과제를 추진해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최우수 시·군에는 아산시와 예산군을, 우수 시·군에는 보령시, 금산군, 논산시, 부여군을 선정해 표창했다.

●건강증진식품과 041-635-4334

“그 놀이들 저희도 다 해봤는데요”

세상놀이 한마당 ‘따로 또 같이’

①개봉박두

현재를 살아가는 어른들에게는 그때 그 시절의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연결고리들이 있다. 그중 하나가 음식이다. 어릴 적 내 어머니가 해주셨던 그 맛. 그 맛을 일러러 찾아다니거나 아내에게 그때 그 맛을 종용하기도 한다. 그것은 어머니의 품과 고향, 그리고 그때 그 시절의 나를 추억하고자 하는 몸부림이다. 이것이 바로 ‘마더푸드’다. 그리고 또 하나, 놀이가 바로 그것이다.

수년 전 필자는 예산군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요청으로 아주여성들에게 한국의 전래놀이를 지도한 적이 있었다. 그분들은 다문화 인식개선사업을 위해 당신의 모국(母國)을 알리는 귀한 일들을 하는 분들이었다.

그분들과 함께한 시간은 다문화여성분들에게 놀이를 통해 한국의 문화를 전달하고, 그분들의 활동이 더욱 활동적이고 재미난 다문화 인식개선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었다.

공기놀이, 제기차기, 고무줄놀이, 강통차기 등등. 그때 그 시절에 내가 해봤던 놀이들을 더해가던 중 한 분

이 손을 들었다.

“선생님, 그 놀이들 저희도 다 해봤는데요?”

“정말요? 이젠 한국의 전래놀이인데, 다른 분들도 해 본 적 있으세요?”

대부분이 다 해보셨단다. 이름과 방법만 조금 다를 뿐, 나의 유년시절과 별로 다를 게 없는 놀이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다. 심지어는 거의 똑같은 놀이들도 많았다. 반면 처음 듣는 신박한 놀이들도 있었다.

베트남에도, 중국에도, 필리핀, 러시아, 일본, 캄보디아, 태국. 그 어디에도 아이들은 있었고 그들의 고향산천에도 돌과 나무, 땅과 하늘, 물과 바람이 있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자연을 벗 삼아 함께 노닐던 추억들이 있었다.

“여러분이 어릴 적 해봤던 놀이 중에 가장 많이 해봤고, 제일 생각나는 놀이들을 이야기 해 주세요.”

앞에 나와 이야기 하는 분들의 눈빛이 빛나고, 그 이야기를 듣는 분들의 눈빛도 빛났다. 그분들의 이야기 속에는 놀이와 함께 고향이 있었다. 그 놀이를 하던 동네 마당과, 놀이를 함께 했던 동무들. 그리고 부모형제와 고향산천이 있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의 모국(母國)을 가장 잘 아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잘 할 줄 아는 것들로 해보자구요. 다문화인식개선 사업. 여러분의 이야기, 여러분들의 놀이를 하는 것으로 시작해 보자구요”

그날의 놀이 선생님은 내가 아닌 그분들이었다.

이 세상 여기 저기서 ‘따로’의 삶을 살다가 이 나라 한국에서 ‘같이’의 삶을 사는 이주여성들. 내게는 그분들이 놀이 스승이다. 우리는 놀이를 통해 서로의 다른 점과 함께 서로가 닮은 점을 찾아보았다.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새삼스럽기에 각별한 ‘따로’와 비슷하기에 더욱 각별한 ‘같이’의 이야기를 놀이를 통해 나뉘보려 한다. 커밍 순이다.

/강동완 세상놀이연구소 소장





서북부 '재활전문센터' 본격 가동

서산의료원 재활복합병동 준공
재활·음압격리 병동 등 신설

충남도내 서북부권 유일의 거점병원인 서산의료원이 재활복합병동 준공식을 열고, 본격 의료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 도는 지난 9일 서산의료원에서 '서산의료원 재활복합병동 준공식'을 개최했다.

2015년 12월 첫 삽을 뜬 서산의료원 재활복합병동 건립 사업은 지난해 10월 완공될 때까지 국·도비 175억 원, 자부담비 10억 원 등 총사업비 185억

원을 투입했다. 이번에 신축한 재활복합병동은 연면적 6601㎡ 규모(지하 1층·지상 5층)로 일반 50병상, 재활 44병상, 음압격리 5병상을 갖췄다.

층별 시설은 ▲지하 1층 기계·전기실 ▲지상 1층 접수·원무과, 외래 진료과(내과·이비인후과·신경과·신경외과·일반외과·정형외과) ▲지상 2층 재활전문센터 ▲지상 3층 일반병동 ▲지상 4층 재활병동 ▲지상 5층 격리병실(음압병실), 대회의실 등이다.

현재 재활복합병동에서는 재활의학 전문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의사직 1명 ▲간호직 14명 ▲보건의

11명 등을 확보해 병동을 운영 중이며 필요인력을 추가 수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장례식장 리모델링, 주차시설 확충 등 내원 환자의 편의 향상을 위한 시설 개선도 점차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서산의료원 재활복합병동을 통해 ▲지역 의료서비스 이용 욕구 해소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음압시설 격리병상 확보 ▲외래 진료과 이동을 통한 쾌적한 진료 환경 조성 ▲진료·검진 동선 최적화를 통한 신속·정확한 진료 여건 마련 ▲환자 및 직원 휴게·편의시설 확충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보건정책과 041-635-4315

김부성 농업기술원장 취임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지난 2일 기술원 대강당에서 김부성 신임 도 농업기술원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서천 출신인 김 신임 원장은 서울대 농업교육학과를 졸업하고, 경기대 사회복지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바 있다.

김 원장은 서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공직을 시작해 도 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에서 근무했으며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장을 역임하면서 중앙과



김부성
농업기술원장

지방을 두루 경험한 농촌지도 분야 전문가이다.

김 원장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정밀 기술 개발과 청년농업인 육성, 농촌 자원 개발 등 더 활기차고 행복한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농업기술원 041-635-6133

충남대 내포캠퍼스 '윤곽' 나왔다

도, 충남대·홍성군과 MOA 체결
'바이오경제 융합캠퍼스' 제시

충남 내포신도시 내에 건립을 추진 중인 충남대 캠퍼스의 윤곽이 제시됐다. 5개 융·복합학과 및 대학원 등을 설치, 바이오경제 산학 융합 캠퍼스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충남도는 지난달 23일 도청 상황실에서 오덕성 충남대 총장, 김석환 홍성군수와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을

위한 MOA를 체결했다.

MOA에 따르면, 충남대는 내포 대학부지 내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바이오경제 산학융합 캠퍼스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충남대는 2021년부터 10년 동안 연차적으로 지역 연계 연구소와 부속기관, 국제연수원 등을 설립한다. 또 생명과학, 해양수산, 수의축산, 바이오산업, 공공지역정책 등 5개 분야 융·복합 학과 및 대학원을 운영기로 했다.

충남대는 특히 대전 유성구 장대동

에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가 이행되는 대로 내포캠퍼스 부지를 취득키로 했다. 장대동 토지는 대전 행복주택 부지로 지정돼 LH가 토지 감정평가 후 수용할 예정이다.

충남대는 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 범위 내에서 내포신도시와 세종시 내 대학 부지를 동시 교환 취득한다는 계획이다. 내포신도시 내 취득 부지 면적은 약 6만 6000㎡ 규모로 예상된다. 이번 합의각서에는 상호 합의에 의해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나,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는 없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내포신도시발전과 041-635-4883

손정호 15대 소방본부장 취임

충남소방본부는 지난 6일자 소방청 인사발령을 통해 손정호 소방감이 신임 충남소방본부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손 본부장은 1985년 소방사 공채로 소방에 입문해 다양한 요직을 거쳐 보령소방서장과 충남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으로 근무하다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소방정책과장, 대전소방본부장, 중앙119구조본부장을 역임했다. 특히 손 본부장은 탁월한 기획능력과 업무추진력은 물론, 강력한 리더



손정호
소방본부장

십까지 갖추고 있어 직원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손 본부장은 취임사에서 "현장중심의 소방 업무에 최선을 다해 도민에 신뢰를 얻을 것"이라며 "소통과 화합을 원칙으로 한 활기찬 소방조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방행정과 041-635-5567

충남도립대·공주대 업무협약
'공교육 공동체' 밑그림 함께

충남지역 대표 국공립대학교인 충남도립대학교(총장 허재영)와 공주대학교(총장 원성수)가 창의 인재 육성과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교육 플랫폼을 공유한다. 충남도립대는 지난 8일 공주대학교에서 허재영 도립대 총장과 원성수 공주대 총장, 학교 관계자 등이 모인 가운데 '대학 업무 교류



공주대학교에서 충남도립대학교와 공주대학교가 업무교류 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양 대학은 상호 발전과 우호협력 관계를 증진하고 공동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창의인재 육성을 목표로 ▲교육 및 연구에 관한 협력 ▲학생교류 및 연계 교육과정 운영 ▲대학생 현장실습 협력 ▲학술정보 공유 등 교육 플랫폼을 공유하기로 약속했다.

또 사회적 책임이 있는 국공립대학교로서 재정지원 사업에 관한 협력과 세미나·학술회의·심포지엄 공동 개최를 통해 대학-지역 사회 간 상생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충남도립대학교 041-635-6614

'소나무·국화·참매' 새 상징물 선정

도내 우선 식재·공모전 개최

충남도는 지난달 26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충청남도 상징물' 선포식을 개최하고, 도목으로 소나무를, 도조는 참매를 새롭게 선정하고, 도화는 국화를 다시 선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새 상징물은 도민·공무원 온·오프라인 설문 조사와 상징물 개선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했다. 선정위원회는 역사성과 대표성(정체성), 접근성, 인지도, 사회적 가치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실시, 소나무가 100점 만점 중 98.4점을, 국화가 95점을, 참매가 92.1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소나무는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함께 해 온 나무로, 사시사철 푸르름은 충절·지조의 충남 정신과 울곧은 마음을 가진 충남인을 닮았다는 점에서 최종 선정됐다. 참매는 백제인이 사랑한 새로, 용맹하고 포기를 모르는 끈질긴 성격은 수많은 애국열사와 위인을 배출한 충철의 고장 충남의 기개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도는 이번에 새롭게 선정한 상징물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도목과 도화를 도내 주요 장소에 우선 식재할 계획이다.

●운영지원과 041-635-3646



도목(道木) 소나무



도화(道花) 국화



도조(道鳥) 참매

얼빠진 찻다, 어병이

이명재의 충청말 이야기 (30)

찻다, 생각이 모자란 사람

어병이의 또 다른 표현

'너 치매 검사해 봐. 새해 벽두부터 왜 깜박깜박 정신을 못 차리고 병쩨 거?'

새해가 열렸다. 서울서 친구가 온단다. 12시 예산역 도착, 포랑포랑 기차표가 얼굴을 내민다. 어제 그가 보낸 카톡 사진이다. 시간에 맞춰 역 근처를 서성이는데 오지 않는다. 30분이 지나 '왜 안 오느냐?' 문자를 넣는다. 전화벨이 울리고 그의 음성이 귀를 때린다.

어제 기차표를 취소했다. 부산에서 누이가 올라온단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에는 오지 못하겠노라 문자를 보냈단다. 나는 카톡을 다시 본다.

기차표 아래에는 예산에 못 오게 되었노라 문자가 찍혀 있다. 늘 그렇다. 나는 핸드폰에 신경 안 쓰고

산다. 당연히 오는 문자는 건성으로 본다.

어제도 그랬다. 친구의 카톡 문자를 확인했다. 그런데 내용은 읽지 않았다. 내일 갈 테니 마중 나오라는 정도로 짐작하고 덮어 버렸다.

'나는 예전에 당진 산골서 목회를 했어요. 거기 사람들은 모자란 사람을 '찻다'라고 하더군요. 그런 말 처음 들었어요.'

'내가 좀 찻진 찻지.' 전화를 끊는데 문득 지난해 전화 주신 분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당진 시골에서 오래도록 목회를 했단다. 거기서 '찻다'란 사투리에 당혹했다. 역 앞을 돌아서는데 '찻다'가 뒷덜미를 잡는다.

충청말사전을 만들어 보겠다고 펼쳐댄 이후론 늘 그렇다. 처음 들어보는 말이나 충청말을 들으면 다른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국어사전을 펼친다.

'찻다'는 충청도 사람들이 '생각이 모자란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그렇지만 당연히 검색되지 않는다.

옛 기록에도 없고 표준국어대사전에 없다. 다만 비표준어로 '찌다'와 '병찌다'란 말이 조그맣게 네이 버사전에 얼굴을 내민다.

'병'은 얼이 빠진 모양, '찌다'는 기세가 꺾여 풀이 죽는 것이라 풀이했다. 이에 따르면 '병찌는 것'은 '얼이 빠져 판단 능력을 상실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찻다'는 얼 빠진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어병이'가 된다.

이들은 모두 충청말이다. 충청도에서는 얼이 빠진 것 같은 상태를 '얼뺩하다'라고도 한다. 이는 얼이 빠져 병 찻 것이다.

나는 늘 '얼뺩하다'. 내만의 상상 속에 빠져 있다. 그러다 보니 종종 세상과 소동이 끊어진다. 이 새해에도 나는 죽 그럴 것만 같다. 조금 얼뺩한 어병이, 조금 모자란 어리버리 찻다로 살아갈 것만 같다.



이명재
시인·충청언어연구소



내 탓 숨기지 않은 정조의 새해 다짐

내포칼럼



백승종
한국기술교육대 겸임교수

1780년 경자년, 정조의 새해맞이 창덕궁에서 백성들 새해문안 받아 윤음으로 농사권장 신년담화 발표

‘벗의 길’ 등 올바른 군신관계 강조 임금의 도리로 ‘손익삼우·손익삼오’ 언행 점검하며 신하 모범되려 노력

경자년이 왔다. 새해 아침 돋보기를 끼고 서실에 들어가 조선왕조실록을 꺼내어 읽었다. 역사 속 경자년의 풍경을 그려본 것이다. 임금님은 설날에 무슨 일을 했을지 궁금해 하는 시민들도 있을 것 같다.

정조 4년(1780) 경자년의 설날로 돌아와 보자. 그날 정조임금은 아침 일찍 사직단으로 행차하였다. 왕은 제단에 바칠 희생용 동물의 상태부터 점검했다. 이어서 제기도 꺼내어 흠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돌아오는 길에 정조를 태운 여가는 창덕궁 앞에 멈춰 섰다. 거기에는 임금님에게 새해문안을 여쭙려고 올라온 각 고을의 호장들이 줄지어 있었다. 왕은 그 가운데 몇을 불러 백성들의 괴로움이 무엇인지, 해당 고을에는 어떤 애로가 있는지를 물었다.

대궐로 돌아온 임금은 준비해둔 윤음(輪音), 곧 신년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백성의 주업이 농업이었기 때문에, 자연히 농사를 권장하는 내용이었다.

‘다행히 지난해에는 농사가 잘되었다. 백성들의 고통이 조금 감소했다니, 잠 못 이루고 근심하던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이제 새해를 맞아 다시 농사를 시작될 때가 되었으니, 더욱 부지런히 힘써 새해의 농사를 더욱 철저히 준비하자. 그래야 또 풍년이 들기를 바랄 수 있을 것이다.’

덧붙여서 정조는 관리들이 새해에도 각자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특히 산업에 관해 많은 주의를 기울이라고 당부하였다. 독을 쌓고 방축을 보수하며 눈에 물대는데 차질이 없게 하여, 농부들이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데 불편이 없게 하라는 부탁이었다. 요셋말로, 시민의 일터가 고도의 생산성을 유지하며 원활히 운영될 수 있게 모든 공직자들은 최선을 다하자는

다짐이었다.

그해 정월 정조의 가장 큰 관심거리는 무엇이였을까. 얼핏 이해하기 어려운 일일지도 모르겠으나, 임금님은 ‘벗의 길(友道)’을 밝히려 노력했다. 정조의 벗은 조정의 신하들이었다. 그래서 그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싶은 것이 왕의 새해 소망이었다.

어느날 경연에서 이명훈이란 관리가 마침 이런 말을 하였다, “손익삼우(損益三友)·손익삼오(損益三樂)는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매우 절실한 바입니다.” 알다시피 이것은 ‘논어’에 나오는 말씀이다(계씨편).

무슨 뜻인가. 공자는 우리에게 유익한 벗도 셋이요, 해로운 벗도 셋이라 했다. 정직한 벗, 성실한 벗, 그리고 지식이 많은 벗은 유익하다고 했다. 반면에 편벽한 벗, 아첨하는 벗, 빈말을 일삼는 벗은 해롭다고 했다.

또한, 예약의 절도를 알고 타인의 착한 일을 칭찬하며 어진 벗을 구하는 일은 유익하다고 했다. 그러나 교만하거나 편히 빈둥거리는 것, 그리고 주색을 탐한다면 해롭다고 경고하였다.

정조는 이명훈의 주장에 동의하였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럼 지금 이 나라형편은 어떠한가? 내가 어제 성균관 유생들에게 정직과 성실에 관한 의견을 물었으나, 어느 누구도 임금인 나의 부족함을 거론하지 않았다.’

정조는 잘못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았다. “신하들이 이러한 것은 왕인 내가 성심이 없어서이다. 그들을 감동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니, 어찌 그 사람들의 허물이라 하겠는가? ... 나로 말하면 언행을 고치는 적은 있었어도 힘쓰는 바가 없었구나.” 이 한 대목을 읽을 때 나 자신도 모르게 웃음을 다 시 여겼다.

빨라도 너무 빠르다

나태주의 꽃꽂이편지



시인·꽃꽂이문화관장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서두르고 조급해하는 사람들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오늘날 우리 한국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속도 제일주의, 조급증이다. 도무지 진득하지 못하다. 무엇이든지 빠르게 똑딱 해치워야 직성이 풀린다. 참지를 못한다. 기다리지 못한다. 특히 남의 일에 관한 한 더욱 그렇다. 그리고는 쉽게 결론을 내리고 돌아서 버린다.

우리가 예전에도 그랬을까? 아주 오래전 세상은 모르겠거니와 내가 어려서 보아온 세상은 조금은 여유가 있고 그윽한 정취가 있었던 세상이었다.

궁핍한 가운데서도 타인에게도 좀 더 너그러웠으며 자신의 문제에 있어서도 오늘날 우리들처럼 과격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런데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자신들도 모르게 이렇게 조급한 사람들이 된 것이다.

날마다 이용하는 자동차만 해도 그렇다. 웬만큼 달려서는 자동차가 달리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갑갑하다. 너나 할 것 없이 그건 마찬가지다. 컴퓨터도 그렇다. 컴퓨터가 얼마

나 빠르고 좋은 기계인가. 그런데도 우리는 컴퓨터가 느리다고 불평한다. 도대체 얼마나 빨라야 빠른 것이 될 것인가. 이는 속도 불감증 수준이다. 일 처리 하나하나가 그렇고 현상이나 사건에 대한 대응방식이 모두 그렇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자신이 어디로 향해 가는지도 모르고 빨리만 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지 모르겠다.

이것은 맹목이다. 무엇보다도 자신을 좀 살필 필요가 있다. 그런 다음,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

그래야 다음의 방향이 나오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무조건 서두르고 빨리만 가자고 재촉할 일이 아니다.

오늘날 우리는 참으로 잘사는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부족감을 느끼고 불만을 말한다. 심한 경우는 화가 나 있기도 하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는 우리들의 속도감에 있지 않나 싶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다.’ 이것은 또 괴테의 충고다. 방향을 잘못 정하고 속도만 낸다면 망하는 길이 빠를 뿐이다. 속도를 좀 줄이자. 쉽게 줄어들지 않겠지만 지금 내가 빠르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조절을 해보자.

그러다 보면 보이지 않던 풍경이 보이고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우리는 지금 빨라도 너무 빠르다. 그러다 보니 어지럼증을 앓는 것이다.

백제인들이 즐겼던 공주밤 이야기

생생한장리포트



신용희
금강뉴스 대표

공주는 고추, 오이, 버섯 등 여러 가지 농산물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산물을 꼽으라면 단연 ‘공주밤’이다.

알밤의 고장 공주 한옥마을 앞 고마센터 일원에서 열린 ‘2020 겨울공주 군밤축제’가 1월12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불타는 밤! 뜨거운 공주!’ 주제로 열린 축제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특히 알밤의 무한한 변신을 기대하는 전국 밤요리 경연대회가 개최, 전국 12개팀 출전하여 공주 밤의 브랜드 향상과 관광 상품화에 부응했다는 평을 얻었다.

축제가 열린 3일 동안 7만 5천명이 다녀가 지난해보다 1만 명이 더 다녀간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주시는 밝혔다. 이제 ‘겨울공주 군밤축제’는 중부권을 대표하는 겨울축제로 자리를 잡았다.

공주는 언제부터 밤의 특산단지였을까? 밤의 역사는 오래전 즐문도 기시대흔적에 나타나고 있는데 공주 지역에서의 밤 재배는 약 200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

고 있다. 낙랑고분의 옷철 상자 안에서 군밤의 흔적이 발견됐고, 당나라 위징(魏徵)의 수서(隋書)나 이연수(李延壽)의 북사(北史)라는 책에서도 ‘백제나라에는 큰 밤이 생산되고 있다’라는 기록이 있다. 또 ‘조선왕조실록 세종지리지’에 ‘공주지역이 밤나무 심기에 적합한 지역’이라는 기록도 있다. 특히 공산성에서도 백제시대 밤이 출토되어 백제인들이 밤을 즐겨 먹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만큼 공주는 지리적, 자연적 환경이 밤나무의 생육에 적합한 기후와 토질이 형성되어 예로부터 당도가 높고 고소한 특유의 맛으로 유명하다.

공주시 정안면 월산리에는 공주 최고령 밤나무(수령 110년)를 보호수로 지정하였고, 또 정안밤은 지리적 표시제(제4호, 2006. 9. 15)로 등록되어 공주가 밤의 고장임을 증명해 주었다. 공주시의 정안면과 의당면, 계룡면, 반포면 일대의 산지는 ‘밤밭’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밤나무가 지천이다. 그래서 가을에는 백제문화제와 더불어 ‘밤 쭉기 체험’을 함께 즐길 수 있다.

정안후계소와 한옥마을 홍보관에서는 공주밤빵을 비롯한 다양한 상품이 판매되고 있고 특히 알밤동동주는 일본인들에게 인기있는 먹거리로 알밤을 활용한 관광상품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올 겨울 공주 나들이에는 공주밤과 함께 건강과 추억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겨울에는 역시 군밤이 최고유~”

충청남도

관창아?

작은 물음조차 큰 힘이 됩니다.

같이 한 번 웃어주고 같이 한 번 울어주는 작은 생명 습관

2019년 생명사랑주간 자살예방 표어 공모전 장려상 수상
안영준, 충남 당진 원당초등학교

충청남도 해양 新산업 ★은 이루어진다

충남도가 서해바다의 꿈을 현실로 만들고 있다. 국내 유일 해양생물보호구역인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은 조력발전소 건설 추진으로 상처 입은 바다를 자연과 인간, 바다와 생명이 어우러진 글로벌 해양생태관광거점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세계 5대 갯벌인 가로림만해양정원 면적은 총 159.85km²로, △건강한 바다 환경 조성 △해양생태관광 거점 조성 △지역 상생 등을 기본 방향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271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된다. 최근 기획재정부로부터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에 최종 선정된데 이어 정부의 '제5차 국토·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021~2025)' 대상 사업에 '가로림만 해상교량' 건설 사업이 반영되면서 가로림만해양정원 조성의 청신호가 켜졌다. 충청남도의 해양신산업의 꿈이 한발 더 가다섰다. /도정신문팀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 개요

위 치 : 가로림만 일원 159.85km² / 해역 112.57km² + 육역 47.28km²
 추진근거 : 해양생태계법, 갯벌법
 사업내용 : 가로림만의 체계적 관리&활용을 통한 해양생태관광 거점으로 국가해양정원 조성

총사업비 : 2,715억원 사업기간 : 2021~2025년
 추진주체 : 해양수산부·충청남도(주체) + 서산·태안(TF팀)

해외 사례

유럽 | 와덴해

네덜란드·독일·덴마크 3개국 공동 협력체계 구축, 생태관광객 증가
 연간최대 8천만명 방문
와덴해 공동위원회(CWSS)장계



독일 | 랑어욱섬

인구 2,000명의 작은섬인 랑어욱섬 갯벌복원과 보전으로 관광객 매년 10만명 이상이 방문



홍콩 | 마이포 습지공원

생태계 파괴의 예방을 위한 생태 완충 지대로, 개발과 보전의 상생 및 생태교육 장소로서의 기능



일본 | 나오시마섬

황폐화된 섬의 생태복원으로 거대한 예술공간으로 탈바꿈. 인구의 수백배에 달하는 관광객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세계적 트렌드 변화



생태연계관광 빠르게 성장 중
 전체 시장의 7% 점유

전체 관광시장 성장을 대비
 3배 빠른 성장을

※ 환경부·문체부 생태관광 활성화방안 (2008)

시설조성에 따른 파급효과

국가해양정원센터 등 시설 조성으로
 조성비 총 2,715억원에 따른 파급효과

일자리
 2,000 개

생산유발
 4,588 억원

관광객
 연 413 만명

가로림만의 생태적 가치

보전가치가 높은 해양 자연유산
 2016년 해양보호구역 지정

환경 가치평가 전국위
 가로림만의 환경가치평가 연구 (해수부, 2007년)

세계 5대 갯벌

국내 유일의 해양생물 보호구역

생태계 건강도 상위 25%

조용한 삶과 휴식의 공간
 힐링, 휴식, 여가 등 정적 공간으로 조성

체험과 역동적 활동공간
 체험, 교육, 문화 등 동적 공간으로 조성

화합과 상생 발전공간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센터, 화합의 다리 등 상생발전의 공간으로 조성

가로림만 해양정원

가로림만을 단순 보호·보전 중심에서
지역상생형 글로벌 해양생태복원·관광 거점으로 구축

건강한 바다환경 기반 조성

- 국가해양정원센터
- 갯벌 생태계 복원
- 갯벌정원

해양생태관광 거점 구축

- 생태학교
- 정박이물범전시홍보관
- 등대정원

지역상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

- 화합의 다리
- 생태계탐방벚길, 들레길 등 연계한 가로림만 공동브랜드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연관성

11조원 3조 18년 30년

해양신산업 혁신성장 실현

해양수산부 혁신전략 (2019)

우리 놀러가 볼까?...마을이 키우고 마을에서 노는 아이들

더 행복한 마을

(32) 예산 신양놀이문화마을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로 맺은 교육공동체

복합공간 놀까에서 공부하고 와글와글놀이터에서 뛰놀고

"마을 어른과 아이 한 자리서 같은 꿈꾸는 공동체 꿈꿔"



강동완 사무국장과 신양놀이문화마을을 이끌어가는 사람들



와글와글놀이터에 설치된 줄타기 체험을 즐기는 아이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란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단순한 보육의 책임이나 감시의 시선을 지우려는 것이 아니라, 한 아이가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사람답게 자라나기 위해서 공동의 자양분이 필요함을 강조한 말일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최근 도내에도 다양한 마을교육공동체들이 생겨나, '나의 아이를 우리의 아이'로 키워내 지역사회의 일꾼으로 성장시키는 데 주목하고 있다. 강동완 사무국장 뜻을 같이하는 10여 명의 학부모들이 함께하는 신양놀이문화마을도 그런 마을교육공동체 중 한 곳이다.

신양면커뮤니티센터 2층에 자리한 놀이카페 '놀까'는 마을의 주활동 무대이자, 지향이 담긴 공간이다. 온 세상이 아이들을 향해 공부와 성적을 세뇌시키고, 무한 경쟁을 주입하는 오늘 '놀이카페'에 '놀러가 볼까'란 메시지는 보기 드문 목소리다.

커뮤니티센터 뒤편에 마련된 와글와글놀이터는 또 어떤가, 짚라인이 내달리고 나무들 사이에 매달린 해먹에서 별 좋은 날이면 책과 뽕굴다 낮잠을 청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노라면 정말 '놀이문화마을'에 들어선 사실이 실감난다.

'마을'이란 수식어가 붙었지만, 사실 이곳은 아직 지난 해 비영리단체

로 시작된 작은 공동체이다. 2011년 전직과 함께 예산읍에서 신양면으로 이주한 강 사무국장은 세 아이들을 사교육이 없는 환경에서 키우고자 이곳을 택했다.

막상 옮겨 오고 나니, 아이들이 방과 후 놀 거리, 할 거리가 마땅치 않았고 읍내에 비해서도 경험의 기회와 종류가 부족했다. 작은 학교일수록 학교와 마을, 교사와 학부모 및 아이들 모두가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엮힐 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는 걸 알기에 강 사무국장도 학부모들이 뭉친 것이 놀이문화마을의 시작이다.

"시골 아이들일수록 모여서 놀 만한 공간과 시간이 없습니다. 읍내만

해도 아이들은 방과 후 학원에서 모이고 함께할 시간이 생기지만, 이곳의 아이들은 바로 각자의 집이 있는 마을로 돌아가거나 지역아동센터에서 6시까지 시간을 보낸 후 귀가하고 있습니다. 6시 이후, 아이들은 돌봄 공백에 처하게 됩니다."

학부모들은 매주 수요일이면 당번을 정해 2시간씩 아이들과 함께 뛰어노는 시간을 가졌다. 그렇게 시작된 놀이 품앗이는 신양면 커뮤니티센터 건물이 들어서며 탄력을 얻기 시작했다. 1층은 노인회관과 다목적공간으로 활용하고 2층은 독서실로 활용 예정이었는데, 강 사무국장의 제안으로 '놀까'가 들어서게 된 것. 인근의

신양초와 신양중에 다니는 아이들이 사는 마을에 아이들을 위한 공간과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공동체의 소망이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현재 놀까에서는 매주 월‧수‧금요일 저녁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월요일엔 지역 교회 목사님이 진행하는 영어수업이, 수요일엔 중학교 교장으로 퇴임한 주민이 지원하는 자율학습이, 금요일엔 부족한 공부를 스스로 보충하는 시간이 마련돼 있다. 예산군과 교육지원청의 지원사업과 주민들의 품앗이가 이뤄낸 결과라, 그 시간이 더욱 값지다.

마을공동체는 앞으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으로의 발전을 꿈꾼다. 그러나 당장은 운영비를 스스로 충당할 정도의 재정 자립이 급선무라 지속가능성의 방향을 할 새 없이 모색하는 과제가 남았다.

지난 연말까지 6명 정도의 마을에서 선진지 견학을 다녀갔다는 신양놀이문화마을, '마을이 살아야 우리가 산다'라는 구호 아래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가는 마을의 움직임이 언젠가는 충남도 교육공동체의 미래를 이끄는 힘찬 날갯짓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손유진 syj0319@korea.kr

공주 군밤축제 7만5천 찾아 북적

밤 배재 농가 함박웃음

[공주]알밤의 고장 충남 공주에서 열린 '2020 겨울공주 군밤축제'가 12일 막을 내린 가운데 3일 간 7만5000명이 방문해 성황을 이뤘다.

'불타는 밤! 뜨거운 공주!'라는 주제로 지난 10일 고마에서 개막한 축

제는 3일 동안 7만 5천명이 다녀가 지난해보다 1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방향을 맞아 인근 세종과 대전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 단위 관광객들의 모습이 크게 눈에 띄었다.

장작불에 알밤을 노릇하게 구워먹는 대형화로에는 올해도 가장 많은

체험객들이 몰리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밤 재고 문제로 고민이 많았던 지역 밤 재배농가들의 입가에도 모처럼 미소가 떠나질 않았다.

공주지역 29개 밤 농가가 참여한 판매부스에는 시중보다 저렴하면서도 품질 좋은 밤을 구매하기 위한 발길이 끊이지 않았으며 지난해 매출 3억 원을 크게 웃돌 전망이다.

/공주시 제공

1919년 태어나 올해 101세 된 신예균 옹

일본 탄광촌에서 4년 노역 일본 사람과 많이 싸우기도 연예결혼 혼인 50대 막둥이 행복비결 "농사짓는 즐거움"



[예산]1919년 독립만세의 햇불 드높던 해에 태어나 올해로 만 100세가 되는 신예균 옹.

출생지 고덕 사리에서 지금까지 터전을 삼고 있는 신 옹은 "고덕에서 농사짓고 살던 때가 행복했다"고 말한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밭을 일궈고, 사람들과 어울려 이곳저곳 신나게 돌아다니며 마을을 누비는 활발한 청년으로 성장했다.

"20살 때 일본 좋은 곳에 간다는 모집이 있어 지원했어요. 예산역전 예일여관이라는 곳에서 하루 묵고 기차에 올라 일본에 도착하고 보니 탄광촌이었어요. 4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죠. 한참 까불 적에 갔으니 무서울 게 없었어요. 일본놈이 우리 기를 누르려고 하는데 나는 지려고 하지 않으니 항상 시비를 걸어왔어요. 그때 많이 싸우기도 했습니다. 한국인은 1000명 정도 있었어요. 먼저 도망 나온 사람도 있고 거기서 죽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24살 때 집으로 돌아왔는데 고덕서도 강제노역을 많이 갖는지 비어있는 집이 많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뒤 5개월 지나 해방이 됐고, 그날에는 집집마다 만세 부르는 소리가 가득했다고 한다.

신 옹이 예산 고덕 구만포가 막히기 전의 기억을 꺼냈다. "구만리(포구)에 물이 들어오던 때 가을이 되면 새우젓 배가 들어왔어요. 가끔 놀러

가 새우젓을 사 오고 그랬죠. 배 들어온다는 소식을 알기는 해도 직접 가는 건 어려웠죠. 그러니 구만리는 갈치고랭이 먹고, 사리는 보리죽 먹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구만포는 조선시대 삼교천 유역 수륙교통의 요지였다. 쌀을 포함한 농작물을 서울로 수송하고 새우젓, 소금 등을 실어오는 배들이 선착하는 포구로 번성했던 곳이다. 1979년 삼교천방조제가 축조돼 구만리 일대에 들어오던 갯물은 끊기고, 간척지가 되면서 예산 황금쌀의 주산지가 됐다. 할아버지는 당시 흔치 않았던 연애를 통해 혼인을 했다. 4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난 김기환 할머니와 60여년 넘는 세월 부부 연을 맺고 사는 동안 행복했고, 아내에게는 "참 좋은 사람이었다"고 말한다.

"어머니, 아버지 사이가 참 좋으셨어요. 금슬도 좋으셔서 50대 넘어서도 막둥이를 보셨죠. 집에 나갔다 오면 아기가 태어나 있고 그랬어요". 아들의 말이다. 신 옹은 "고단한 시절도 있었지만 농사짓는 사람이 씨 뿌리고 추수하며 생활하는 것, 그 자체가 행복한 삶"이라고 말한다.

김두레/무한정보 dure1@yesm.kr

한산모시문화제, 문화관광축제 선정

국내외 홍보·마케팅 특전

글로벌 축제 기반 구축 기회

[서천]초여름 서천군에서 개최되는 '한산모시문화제'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0-2021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한산모시문화제는 2년간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비를 지원 받으며 문화관광축제 명칭 사용, 한국관광공사를 통한 국내외 홍보·마케팅 지원 등 특전을 얻어 세계화를 도모하게 된다.

1500년을 이어온 한산모시의 가치를 알리는 한산모시문화제는 타 축제에서

는 볼 수 없는 모시학교, 미니베를로 시짜기, 저산팔읍길쌈놀이 등 대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차별화했고, 청년 문화기획단 및 모시맘기획단을 운영하며 탄탄한 운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

2020년으로 31회를 맞이하는 한산모시문화제는 신진디자이너공모전을 아시아로 확대해 글로벌 축제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객 체류를 연장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서천군 제공

또한 1월 중 충남도내 최초로 전기마을버스(마을버스) 3대가 운행되고, 하반기 전기버스 4대, 수소버스 8대가 시내버스 노선에 투입되면, 올해 친환경버스 23대가 아산시를 누비게 된다.

아산시는 2030년까지 친환경버스로 경유버스를 전면 교체할 계획이다.

/아산시 제공

아산시 전기버스 추가운행 개시

올해 수소버스 등 23대 운행계획

[아산]아산시는 새해부터 친환경 전기 시내버스 2대를 추가 운행하고 있다.

현재 전기버스 6대가 운행 중이며, 올해 2대가 900번대와 500번대

노선에 추가 투입돼 운영 중이다.

전기시내버스는 전기모터로 구동돼 1회 충전 시 319km를 주행하고, 운행 중 배출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버스로 쾌적한 승차감을 제공해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다.



저출산 극복 총력...예산군 출생아 수 증가 비결 있었네

작년 291명 출생, 14% 증가
결혼축하금도 300만원 지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모든 출산가정에 지원

[예산] 예산군보건소가 모자보건서비스 확대 시행을 바탕으로 출생아 수를 크게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군 보건소에 따르면 예산군 출생아 수

는 2019년 12월말 기준 291명으로, 2018년 총 출생아 수 256명에서 약 13.7%인 35명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예산'을 만들기 위한 과감한 투자가 출생아 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이다. 군은 기존에 지급하던 출산장려금을 지난해 7월부터 출산육아지원금으로 확대해 첫째아이 200만원, 둘째아이 400만원, 셋째아이 600만원, 넷째아이 1000만원, 다섯째아이 이상은 3000만원

을 각각 출산 가정에 지원하고 있다. 또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모든 출산가정으로 지원하도록 사업을 확대했고 기존 정부지원금뿐만 아니라 본인부담금을 90%까지 지원해 산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아울러 건강관리 지원 사업 이용자 수도 지난해 12월말 기준 178명으로 2018년 총 이용자 수 122명에 비해 약 1.5배 증가했다. 더불어 보건소는 지난해 7월부터 난

임 시술 연령 기준 폐지에 따라 지원 횟수를 확대했으며, 10월부터는 사실혼 부부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 2019년 총 64명을 지원했고 이 중 14명이 임신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과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이 의료비 지원, 영양플러스 사업 등을 통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있는 것. 한편 예산군은 출산과 인구를 늘리

기 위해 올해부터 결혼축하금 300만원을 지원하는 등 과격적인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부부 모두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결혼하는 경우 300만원을 3년간 분할 지원한다. 또한 셋째아이 이상을 키우고 있는 가구 중 무주택 가구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대출이자 4.5%이내의 금액을 2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도정신문팀

2020충남체전 준비 본격 돌입

6월 당진서 첫 통합개최
친환경 대회 목표로 꼼꼼히

[당진] 처음으로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을 통합해 열리는 2020충청남도체육대회가 오는 6월 당진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2020 충남체전은 '몽쳐라! 당진에서, 피어라! 충남의 꿈!'을 구호로 내년 6월 11일부터 6월 14일까지 4일간 당진종합운동장과 35개의 경기장에서 진행된다. 충남체전준비단은 숙소와 관련해 경기를 앞둔 시군선수단이 사전예약을

원하는 점 등을 토대로 방문선수단과 숙박업 측의 마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숙박업 단체들과 꾸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주차장문제도 종합운동장 인근 부지 7만여 m²를 매입해 해결했다. 준비단은 매입 부지에 임시 주차장을 조성하면 종합운동장 주차장을 포함 3000여대의 주차장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준비단은 이번 2020 충남체전을 일회용품 없는 체전에 도전, 친환경 체육대회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준비단은 체전에서 일회용품을 대신하



는 에코백, 컵, 텀블러 등의 물품을 사용하고 야광봉이나 비닐팩 등 쓰고 버려지는 용품 보다는 꾸준히 사용이 가능한 물품을 제작하기로 했다. 배길령/당진신문 skyseaone@naver.com

송금중 교수, '낭만닥터' 의학자문

수술 등 의료행위 대사 감수

[천안]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외과 송금중 교수가 새해부터 방송을 시작한 SBS 의학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의 의학자문으로 활약하고 있다. 낭만닥터 김사부 시즌1에서도 의학자문을 담당했던 송 교수는 시즌2에서도 대본의 의학적 감수를 비롯해 수술 등 의료행위들에 대한

자문 등을 담당해 드라마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송 교수는 또 드라마 제작을 앞두고 여러 차례 제작진과 배우들을 병원으로 초청해 응급의료센터, 수술실에서 심폐소생술, 피부부합술, 기관내삽관술 실습과 각종 수술 참관 기회도 제공했다. 이정구/충남시사신문 yasa3250@empas.com



송금중 교수가 배우와 제작진을 병원으로 초대해 의료 기구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

당진전통시장, 우체국 쇼핑몰 입점

당찬만능소스, 허니버터 김자반

[당진] 당진전통시장의 대표상품 '당찬만능소스'와 '허니버터 김자반' 등 2종류의 상품이 우체국쇼핑몰 입점이 확정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쉽게 구매가 가능해졌다. 당진전통시장(회장 정제의)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와 한국우편사업진흥원과 함께 전통시장

대표상품 판로 확대를 위한 우체국쇼핑몰 입점 간담회를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은 전통시장의 대표상품들을 더 많이 입점할 수 있는 방안과 판매수수료에 대한 인하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에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은 당진시장의 '당찬만능소스'와 '허니버터 김

자반' 등 입점에 필요한 콘텐츠 무료 제작 지원을 통해 시장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상품촬영을 비롯한 웹 디자인과 상품등록 등을 무상으로 지원할 것과 수수료도 5%로 인하하는 등을 약속하기도 했다. 정제의 회장은 "이번 당진시장의 상품이 우체국 쇼핑몰에 입점해 앞으로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대표상품에 대한 판로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윤성/당진신문 psychojys@daum.net

중년 여성들의 통기타 화음에 흠뻑

예산 통기타 동아리 '통아리'

[예산] 통기타의 아름다운 리듬 '통아리'. 모두 중년여성으로 구성된 예산 통기타 동아리 '통아리'는 '꿈을 먹는 젊은이', '내 고향 충청도', '연가' 메들리 가신나게 혹은 잔잔하게 변주된다. 회원들의 노래와 화음도 자연스럽게 따라 흐른다. 리듬을 타는 발장단에 어깨 박자까지, 흥취가 고스란히 전해진다. "아까서 때부터 웬지 모르게 기타가 궁금했어요. 50살 넘어 처음 시작해

배우는데 쉽지만은 않았지만 막상 시작하니 정말 좋아요" 김정순 회원은 "어느 날 남편이 기타를 사 온 거예요. 남편이 기타 치는



50대 중년여성으로 구성된 예산군 통기타 동아리 회원들

동영상도 찍어주며 응원해주니 자부심도 생기고 감사한 마음"이란다. 박경숙 회원은 "사는데 뭐 있겠나 건강하고 행복하면 되지" 하는 생각으로 편하게 하고 있어요" 라고 말했다. 김두레/무한정보 dure1@yesm.kr

청양군 출산장려금 지원 혜택 확대
1년 거주 안 해도 지원

[청양] 청양군이 올해 부터 출산장려금 지원기준을 완화, 지원에서 소외됐던 일부 출산 부모들에게도 혜택이 확대된다. 군은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해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을 했더라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원신청 기간에 대해서도 신생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면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군은 이밖에도 ▲산후건강관리비 지

원 ▲출산축하금 지원 ▲산모도우미 본인부담금 90%, 큰아이돌봄서비스 100% 지원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영양보충식품 지원 ▲행복한 산모교실, 모유수유클리닉 운영 ▲산전검사와 영양제 지원 등 다양한 출산 장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양군 제공

한방 치료로 7명 임신 성공

성공률 16.3% "매우 고무적"

[당진] 당진시보건소는 결혼 후 임신이 되지 않는 난임부부에게 2018년부터 한방 치료비를 지원해 지난해까지 모두 7명이 임신에 성공했다고 2일 밝혔다. 군 보건소에 따르면 임신이 되지 않고 인공, 체외 시술 등 난임 치료에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소득과 상관없이 한방 치료비를 지원해 왔다. 이렇게 보건소로부터 난임 치료를 위해 한방 치료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2019년 12월 기준 모두 43명으로, 이중 7명이 임신에 성공해 16.3%의 성공률을 보였다. /당진군 제공

지원 대상은 만44세 이하 여성으로, 배란장애나 원인불명 등으로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 1년 간 1회, 1인 최대 150만 원 한도도로 지원해 개인별 건강상태에 따라 최대 3개월의 치료기간 동안 침, 뜸 한약 등 한방치료를 받도록 했다. /당진군 제공

천연기념물 수달의 안타까운 죽음

서천 판교천에서 차에 치여

[서천] 천연기념물 제330호로 지정된 수달이 판교천과 바다가 만나는 기수역에서 사체로 발견돼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전북 군산시에 거주하는 한주민이 최근 한성리 약사암에서 준장대 방향으로 지나다 교각 옆에서 수달 1마리의 사체를 발견한 것. 평소 한성리와 장구리 사이 교각은 낚시행위로 인한 사망사고와 함께 과속으로 인한 접촉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으로 수달 또한 먹이 사냥

을 위해 교각을 지나다 차에 치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평소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만큼 교각 진입부에 과속방지턱 설치가 제기돼 왔던 곳이다. 이를 제보한 한 주민은 "천연기념물로 보호되고 있는 수달의 사체를 보고 마음이 편치 못했다"며 "이곳이 인명사고도 발생한 곳인 만큼 주민들과 수달의 안전을 위해 과속방지턱이 시급히 설치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장환/서천신문사 news1128@hanmail.net



주민·관광객 아우러진 ‘여름음악회’로 농촌에 새 활력

주민자치일번지

-서천군 서면 주민자치위원회

문화예술교육 결과발표를 축제로 미용봉사 진행하며 주민 화합

서천군 서쪽 끝 해안에 자리한 서면에는 2400여 세대가 모여 산다. 서면 주민자치위원회는 관광지라는 특성 때문에 바쁜 주민들을 화합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관광활성화를 이뤄내고자 했다.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13년이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통기타, 난타, 서예, 노래교실 등 다양하다. 일주일에 한번 전문 강사들이 와서 지도하며 보통 한 프로그램에 20여명 이상이



서면 주민들이 춘장대 여름음악회에서 댄스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참여할 만큼 반응이 좋다.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육성 사업은 이러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활동에 큰 도움을 줬다.

무엇보다 변화한 것은 주민 개인의 삶이다. 농촌이라는 지역 특성상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왔다. 충남도의

지원사업으로 진행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주민들의 갈증을 해소해 주었다.

지금은 서면의 대표 축제가 된 춘장대 여름음악회도 2014년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 공동체 육성 사업을 통해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춘장대 여름음악회는 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동기를 부여해 주었다.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한 자신들의 실력을 뽐낼 수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일궈낸 춘장대 여름음악회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사랑받는 축제로 성장했다. 관광객은 주민들의 연주에 환호했고 축제는 점차 활성화 됐다. 주민이 주체가 되어 만드는 축제가 활성화되자, 주민들에게는 소외계층을 돌아보는 여유 또한 생겼다.

서면 주민자치회는 자체 기금으로

찾아가는 미용 봉사도 진행하고 있다. 1년에 세 차례 마을을 지정해 미용 봉사 활동을 실시한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읍내까지 나오기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커트와 염색을 돕는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은 또 하나의 말벗을 만지게 됐다.

쭈니들은 마을을 직접 바뀌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고 서천군을 관광도시로 만들어보자는 분위기도 형성됐다.

조병진 서면주민자치회장은 “각자가 생각하는 살기 좋은 마을의 모습은 조금씩 다르지만 주민 모두 행복하고 잘사는 마을을 꿈꾼다는 것만은 같다”라며 “행복한 서면, 잘사는 서면을 만들기 위해 주민들은 늘 고민하고 화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 ‘충남형 동네자치 성과와 방향’ 사례집

요리연구가 윤혜신, ‘꽃할배’ 작가로 유명세

시아머니한테 궁중요리 전수 텃밭 재료로 제철요리 담백 TV출연에 작가로 ‘공감 요리’

[당진] 윤혜신 요리연구가(55)의 일주일이 짧기만 하다. 밭을 일구며 식당을 운영하고, TV프로그램의 요리 강사로도 출연한다. 또 그림책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그의 요리에 대한 기억은 유년시절부터 시작했다. 어린 시절 방학마다 놀러 간 외가에서 외할머니가 수많은 식재료에 차려주던 밥상, 어머니가 차려주던 소박한 밥상의 냄새가 그의 코끝에 자리하고 있다.

그의 요리의 맥은 대학 졸업 후 결혼 이후로 이어진다. 윤 씨는 “시아머니의 친정어머니가 고종의 셋째 아들의 문인화 선생을 맡았던 김상목 화백의 부인이었다”며 “남편을 따라 궁에 드나들던 시어머니의 친정어머니가 수랏간 상궁에게 궁중음식을 배웠고, 이를 시어머니에게 전수하고, 나에게까지 이어졌다”고 말했다. 2001년에는 그의 요리 세계가 넓어지는 계기가 찾아왔다.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의 전통음식을 알리는 행사에 참가하게 된 것이



윤혜신 씨

다. 당시 구절판을 비롯해 갈비찜, 백김치, 떡 등을 선보이며 한식을 알렸던 그는 “음식에 대한 내 재능에 자신감을 가지게 된 계기였다”면서 “이를 소중히 여기고 더욱 발전시켜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지난 2004년 도시를 떠나 당진에서 시골 살림을 시작했다. 서울 토박이였지만 도시의 바쁜 삶이 오히려 맞지 않았다. 경쟁과 비교하는 삶에서 비켜 있던 부부는 그렇게 합덕읍 석우리에 한정식 식당 ‘미당’을 열고 밥을 짓기 시작했다.

텃밭에서 고추, 가지, 호박, 오이, 비트, 갯잎 농사를 지은 재료로 제철 요리를 선보인다. 그는 “원재료가 음식 맛의 70%를 좌우한다”면서 “간장, 된장, 김치는 직접 담그고, 인공 조미료

는 사용하지 않고 국내산 농산물을 이용해 요리한다”고 말했다.

요리 작가로도 유명인사가 됐다. 어린시절 시인과 작가를 꿈꾸던 그는 첫 저서 ‘살림살이’를 시작으로, 월간 ‘작은책’의 연재글을 모아 ‘착한 밥상 이야기’를 펴냈다. 이후 ‘우리 집에 밥 먹으러 올래?’, ‘손맛으로 만드는 나물요리’, ‘윤혜신의 참 쉬운 저염밥상’을 출간했다.

지난 2016년에는 한 출판사의 제안으로 그림책 ‘꽃할배’를 출간한 것이다. ‘꽃할배’는 꽃을 무척이나 좋아하던 낭만적인 꽃할배 이야기로, 아름다운 추억을 따스한 감성의 글과 그림으로 녹여냈다.

요리책보다 그림책을 출간하면서 더욱 기뻐하던 윤 씨는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를 그렸다”면서 “우리 곁에 존재하는 아버지의 면면을 담았다”고 말했다.

“제 장래희망은 동화작가예요. 요즘에는 음식 이야기를 감동적이면서 쉽게 동화로 쓸 수 있을까 고민해요. 픽션이 아닌 현실의 글을 쓰려고 해요. 발붙이고 사는 이 땅에서, 나와 내 이웃들의 이야기가 담긴 글을 쓰고 싶어요.”

임아연/당진시대 zelkova87@hanmail.net

잉여농산물로 ‘밥 한 끼 밥차’ 봉사

홍성 귀농인 류승아 씨 “정당한 권리 찾기 나서는 이들과 아픔 함께 나누고파”

[홍성] 류승아(45·홍동면) 씨는 2017년 4월, 자연 속에서 농사지며 살고 싶다는 오랜 꿈을 이루고자 홍동면으로 귀농했다. 그는 유기농업과 축산으로 순환농업을 하면서 지역과 학교가 함께 만드는 마을로 정평이 나 있는 홍동의 매력에 푹 빠진 것. “장 보러 갈 필요가 없다는 게 제일 좋아요. 밭에 나가서 한 바퀴 돌다 오면 바구니 가득 먹거리 재료가 가득하죠. 필요한 농산물은 이웃들과 바꿔 먹거나 나눠 먹어요” 승아 씨는 요즘 이웃들의 잉여 농산물을 얻어다 반찬을 만들어 ‘다른 세상을 꿈꾸는 밥차, 밥통’에 보내느라 여념이 없다. ‘다른 세상을 꿈꾸는 밥차, 밥통’은 정당한 권리 찾기를 위해 나서는 이들의 따뜻한 밥 한끼 식사로 연대하는 조직이다. ‘다른 세상을 꿈꾸는 밥차, 밥통’과의 인연은 삼성봉사 앞 삼성서비스지회 노동자들의 장기농성 때 인연이 되어 지금까지 틈틈이 지원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류승아 씨

앞으로 승아 씨는 세제가 필요 없는 마수세미를 퍼서 널리 보급하는 게 새로운 꿈이라 한다. 그래서 최근엔 직접 대마 농사를 짓기 시작했으며, 삼베와 길쌈까지 관심이 넓어져 광시면 신흥리 길쌈마을에 가서 전 과정을 배웠다고 한다.

소수의 인원이 모인 작은 공동체라도 수세미 뜨는 강좌를 개설해 여러 사람들과 함께 마수세미 보급 운동에 힘쓰겠다는.

함께 밥을 먹는 것은 서로의 몸과 마음을 돌보며 사람의 정성을 있는 일이라 믿는다는 승아 씨의 환한 미소가 언제까지나 시대의 아픔이 있는 곳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란다.

김경미/홍주신문 rlarudal4767@daum.net



사서들의 서재



(조 내버로 저/리더스북)

몸의 신호로 꿰뚫어보는 심리

아무리 숙련된 거짓말쟁이일지라도 몸짓은 속마음을 드러낸다. 타인과 대화를 하면서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나와 대화중인 상대방이 핸드폰에만 시선을 쫓는다면 뺨을 수시로 긁는 것을 보고 ‘지금 상황이 지루한가?’ 라고 말이다.

세계 최고의 비언어 행동 전문가 ‘조 내버로’는 미국연방수사국(FBI) 수사관으로, 25년간 지능 범죄와 테러리즘 분야의 수사관이자 감독관으로 활약하며 현직에 있는 동안 비언어 대화법을 연구하였다. 이 책은 시선에서 시작하여 손과 발의 위치, 입술 모양 등 모두 407가지에 이르는

무의식적으로 보내는 몸의 해석을 한 권에 담아냈다.

싫은 소리를 듣거나 딱히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대화할 때 우리는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있어도 복부는 자주 다른 쪽을 향하려 한다. 이를 ‘복부 부정’이라 일컫는데, 만약 상대가 즐겁게 나와 대화하는 듯해도 배는 다른 쪽을 향해 있다면, 혹시 나와 이야기하는 것을 불편해 하고 있는지 짐작해봐야 한다. 또 다른 예로, 스트레스가 쌓인 어떤 면접자들은 면접 도중 자신도 모르게 한손으로 가슴을 가로질러 반대쪽 어깨를 누르곤 한다. 촉각을 이용한 반복적 행동이 무의식적으로 불안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행동은 면접 중에는 되도록 피해야 할 것이다. 자신이 지금 당황하고 있음을 몸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의 주요 메시지는 바로 ‘언어에 속지 말고, 몸짓을 관찰하라.’이다. 인간의 모든 사소한 행동에는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말해주는 단서가 숨어있다. 몸짓 언어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실전에서 확인할수록 생각 없이 놓치고 지나가는 신호들을 즉각 알아차리게 된다. 비언어 신호를 관찰하는 일이 꼭 범죄 수사에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인간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 자신의 속마음에 대한 신호를 끊임없이 내보내기에 이 신호를 재빨리 포착하고 제대로 해석하는 능력을 가질

수만 있다면 당신은 인간관계에 있어 최강의 무기를 갖게 되는 셈이다. 실생활에서 상대방의 몸짓과 심리를 포착하여 제대로 해석한다면 사회적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극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얼굴을 마주 대하는 만남은 관계를 구축하고, 신뢰와 친밀감을 쌓고,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다. 사람의 본심을 나타내는 사소한 행동들을 놓치지 않고 제대로 파악하고 싶다면 이 책이 당신에게 꼭 필요할 것이다.



유재열
충남도청
행정자료실 사서

우리지역 일꾼을 만나다

충남도의회는 각 지역을 대표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는 지역의 일꾼들이다. 충남 도정신문은 제11대 도의회 42명의 도원들을 차례대로 소개한다. 각자 주력하고 있는 정책과 각오 등에 대해 들어봤다.

4차산업시대 디지털 행정 도입 앞장

이공휘 의원(천안4)

공유재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디지털독립군’ 창설 목소리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왔나?="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행정자치위원장으로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체계 구축에 앞장섰다. 지난해 충남도 살림살이 규모가 7조원을 넘어서는 등 갈수록 방대해지면서 집행부의 재정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행정 도입을 요구해 왔다. 특히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기존 활자 대신 지리정보체계(GIS)를 기반으로 한 ‘공유재산 통합관리 시스템’ 도입을 이끌어 냈다. 앞으로도 데이터에 기반한 예산집행 과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나가겠다."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사안은?="2021년 문을 열 천안 디스플레이 혁신공정센터와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천안아산 역세권 R&D 직접지구 개발사업이다. 천안·아산 지역의 부족한 기능을 보완해 새로운 도시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충남의 미래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선 두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R&D 직접지구와 디스플레이 혁신공정센터가 구축되면 관련 분야 스타트업 입주 러시로 청년 일자리 창출은 물론 신기술 개발로

창업 활성화까지 이어질 것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임기 내 꼭 이뤄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지난해 초 ‘디지털 독립군’을 창설해야 한다는 긴급 현안질문을 던졌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는 동시에 거대 통신·데이터 회사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인 데이터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 같이 명명했다. 행정기관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기존 자료를 전산화하고 방대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전담부서 설립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

도민께 한 말씀="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을 위해선 도민의 관심과 요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도민께서 더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행복 충남교육 위한 공교육 강화 주력

한옥동 의원(천안5)

30년 교직경험 토대 연구모임
도내 교육환경 획기적 개선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왔나?="평생 교직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온 만큼 공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 정치에 입문했다. 특히 고교 무상급식과 지역아동센터 활성화, 서북부지역 인성교육센터 건립 추진 등 지난 지방선거에서 공약한 교육환경 혁신을 위해 매진해 왔다. 청소년단체 육성·지원 조례를 비롯해 공교육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제대로 교육 연구모임을 창립해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교육 변화에 최선을 다했다. 앞으로도 ‘행복 충남교육’을 위한 공교육 강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다."

지역 발전에 꼭 필요한 현안은?="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교육환경 조성이 시급하다. 지역구인 천안시 성환읍·성거읍·직산읍·입장면 등 제5선거구는 농촌지역인데, 이 문제는 천안 서북부만이 아닌 충남 농어촌지역이 안고 있는 공통적인 현안이기도 하다. 교육전문가로서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농촌지역 학교를 ‘가고 싶고, 찾아오는’ 지속가능한 학교로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도시와 농촌의 공존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정책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만들고 교육의 질을 끌어올려 농어촌학교 존립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앞으로의 각오는?="충남교육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시대흐름에 맞는 교육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의지가 큰 만큼 어깨가 무겁지만 ‘충남 교육’이라는 드넓은 들판에 물과 거름을 주고 열매를 맺는 의미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자 한다.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발걸음을 같이하는 220만 도민이 있기에 지금 이 순간 더욱 힘을 내게 된다. 초심을 견지하고 소통하며 일하는 의원이 되겠다."

도민께 한 말씀="제11대 도의회에 입문한 지 반 년 가까이 된 지금, 주변에서 ‘체질’이라는 말을 곧잘 듣는다. 30년 공직생활에서 얻은 실천 리더십과 교육행정 경험, 인적망을 활용해 충남 공교육을 바로세우고 농어촌교육을 확 바꿔주는 교육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

지역사회 발전 청사진 ‘호평’

2019 대한민국 탐리더스 대상

충남도의회 김은나 의원(천안8)이 제20회 아름다운교육상 의정인 대상에 이어 16일 ‘2019년 대한민국 탐리더스 의정부문 대상’을 연거푸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충남교육 재정·정책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우수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설계하는 한편, 220만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의정활동을 충실히 해왔던



김은나 의원

점들을 높이 평가받았다. 김 의원은 또 최근 전남 여수시 여수정보고등학교 강당에서 열린 ‘제20회 아름다운교육상’ 시상식에서 ‘의정인 대상’을 받았다. 아름다운교육상은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가 주관하고 교육부·환경부, 17개 시·도교육청이 후원하며 교육수요자 중심의 학교 발전을 이끈 사람에게 수여한다.

기적의 코로나상 대상 수상

충남도의회 한영신 의원(천안2)이 지난 7일 국제대학교연합회(IUA)와 한국대학총장연합회(회장 정창덕)로부터 ‘기적의 코로나상’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 의원은 2019년 한 해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도민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코자 발로 뛰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특히 전반기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으로



한영신 의원

다문화가족과 이탈주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는 동시에 지역 원도심 청년 창업 활성화 등 다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전개해 왔다. 아울러 도민생활 개선을 위한 4건의 조례를 제정하고 도 행정기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 날카로운 지적과 합리적 대안을 함께 제시했다.

평화통일 대통합 기반조성 기여

충남도의회 안장현 의원(아산4)이 지난달 24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2019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남지역회 모범위원 표창 수여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안 의원은 14~19기 민주평통 아산지역협의회 자문위원으로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활동하며 남북 화합과 평화통일 기반 마련에 앞장서 온 노력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실제로 안 의원은 청소년 연수사업과 북한 이



안장현 의원

탈주민이 함께하는 문화체험 프로그램 조성을 위해 아산 YMCA-아산시시민연대-아산 시북한이탈주민센터 간 업무협약과 지원을 주도했으며 ‘충청남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남지역회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급변하고 있는 남북관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도차원의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김명선·김명숙·장승재·정광섭

충남도공무원노조 ‘베스트 도의원’ 선정

충남도의회 김명선(당진2)·김명숙(청양)·장승재(서산1)·정광섭(태안2) 의원이 지난달 16일 열린 충남도공무원노조종합 송년의 밤 행사에서 김태신 노조위원장으로부터 ‘베스트 도의원’ 선정패를 받았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2일까지 도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탁월한 업무능력과 의정활동, 소통과 리더십, 공감 능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네 의원을 베스트 도의원으로 선정했다.



김명선 의원



김명숙 의원



장승재 의원



정광섭 의원

제시했다. 장승재 의원은 11대 의회 안전건설 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도내 해양보호와 도서민 복지 등 분야를 살펴 보며 균형에 중점을 둔 합

리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정광섭 의원은 근중산업 육성과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안전도 부지 이용, 흥성의료원 재활 의료진 보강, 초등학교 1급 발암물질(비소) 검출 대응 등 다분야에서 목소리 내며 발전적인 제언과 따듯한 질책을 이어갔다. 의원들은 “앞으로도 공직자와 도민 모두에게 인정받고 도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활발한 소통과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의회 우수조례 광역부문 수상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서천1)이 지난달 20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대전을 제외한 충청지역 광역·기초의회 중 유일한 수상자로 선정됐다. 전 의원은 전국 최초로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호스틸소화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로 광역부문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조례는 소방차가 신속히 접근하기 어려운 농어촌지역에 호스틸소화전을 설치·관리하기 위



전익현 의원

한 제반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호스틸소화전은 기존 일반 소화전보다 가볍고 방수시 반발력이 작아 노약자와 여성 등도 혼자서 초기 화재에 원활히 대응 가능한 소방설비다. 충남도는 이 조례에 근거, 올해부터 2022년까지 총 37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호스틸소화전을 설치하고 유지·관리 할 예정이다.



“충남형 농민수당 밀그림 그리자”

김명숙 의원 요청 의정토론회

충남형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밀그림을 그리는 대토론의 장이 열렸다.

충남도의회는 지난달 20일 청양군 소재 충남도립대학교 도서관 소강당에서 ‘충남형 농민수당 지급방식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를 마련하고 좌장으로 나선 도의회 김명숙 의원(청양)은 “농민을 단순히 농산물 생산자가 아닌 공익적 가치가 높은 생명산업인 식량 생산의 주역이자 기후환경과 한국의 전통생활문화, 생태환경 교육의 장, 치유공간을 만들고 지켜나가는 공익적 존재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지켜질 수 있도록 농민수당 논의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 이번 토론회를 준비했다”며 “충남형 농민수당의 밀그림을 그리고 이정표를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민수당을 심도있게 연구해 온 충남연구원 박경철 책임연구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농민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가·사회적인 보



상의 성격이자 일정 수준의 금액을 농민에게 직접 보상하는 제도”라며 ▲농업경영체 단위 ▲할증방식 ▲개별 등 세 가지 농민수당 지급 방식에 대한 장단점을 설명했다.

토론자들도 농민수당 도입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중소농을 중심으로 구성된 청양로컬푸드협동조합 박영숙 이사장은 “소농은 물론 여성과 청년을 배제하지 않는 개별지급 방식이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합리적인 방법”이라며 “여성 농업인도 농민수당을 통해 실제로 농업·농촌의 가치를 지켜가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동시에 마을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고 제시했다.

농민수당 도입시 농가·비농가 경영체간 문제 등을 고민해 온 금산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박상우 사무국장은 “지방의 소멸 위기 속에 소농이 주류인 농촌사회에서는 농업인이 아닌 농민이 많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재원 마련을 위한 국도보유세를 논의하고 법제 개편, 기본소득에 대한 이론 정비 등 남은 과제에 대해 더 소통하고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이자리에서 논의된 여러 의견이 도 정책에 반영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병국 충청남도의회 의장 신년사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설렘과 희망으로 가득 찬, 2020년 경자년 새 해가 밝았습니다.



유병국 의장

올 해는 ‘하얀 쥐’의 해입니다. 풍요, 희망, 다산, 행운이 온다는 의미처럼, 우리 충청남도과 대한민국이 더욱 풍요로워지고 크게 도약하는 소중한 한 해가 되길 바라면서,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보람찬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밝아 온 새 해에도 우리 도의회는 오직 도민만을 생각하며, 42명 도의원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마음이 따뜻한 의정을 실천하기 위해 도민과의 소통을 넓혀 나가고, 적극적인 의정과, 연구하는 자세로 의정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도민의 행복을 위해,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의정, 알권리 충족과 약자를 위한 공감의정,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임하는 책임의정, 3대 비전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진정한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발전을 이끄는 온전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도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꼭 필요합니다. 충청남도의회에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활기찬 새 해 첫걸음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한 단계씩 발전을 이루어가는 값진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0. 1. 1.

충청남도의회 의장 유 병 국

내포신도시·홍성 원도심 동반성장 모색

이종화 의원 요청 의정토론회

내포신도시와 홍성 원도심의 동반 성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홍성 원도심 공동화 방지 및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달 17일 홍성문화원에서 ‘내포신도시와 홍성 원도심의 동반 성장’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종화 의원(홍성2)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번 토론회에는 김성길 공주대학교 교수가 발표자로, 이왕건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장과 서용준 홍성군청 도시계획 전문위원, 류철호 (사)홍성군지역발전협의회 회장, 유환동 홍성문화원 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성길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실질적 지역균형발전과 도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주변 시군과 함께 연합도시권으로 상생 발전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도 내포신도시와 홍성 원도



심의 동반 성장을 위한 기본방향과 활성화 정책을 제시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이왕건 본부장은 내포신도시와 홍성 원도심의 차별화된 발전 방안을 제시하며 “내포신도시에는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반영한 장기발전계획 수립과 홍성 원도심에는 새로운 인구나 산업을 유치하기보다 기존의 문화, 관광, 역사 등 다양한 지역자산 활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용준 전문위원은 홍성읍과 내포신

도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보고 개별적 행정단위 보다는 통합적 상생방안을 마련을 강조했다.

이종화 의원은 “충청남도청이 홍성으로 이전함에 따라 내포신도시가 조성되면서 홍성의 원도심 공동화와 쇠퇴현상은 심각하게 나타났다”며 “원도심 공동화는 현실적으로 막기 어려운 현상이지만, 공동화 방지를 위해서는 도시재생사업과 내포신도시와 주변지역이 연계상생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행정서비스 혁신 연구성과 정리

한영신 의원 연구모임 최종보고회

충남도의회 행정 서비스 혁신사례 연구모임(대표 한영신 의원)은 지난 달 16일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에서 최종 보고회를 열고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년간 연구모임 회원들의 노력을 구체적인 성과물로 완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모임 간사를 맡고 있는 충남연구원 김진영 박사는 그동안의 활동 사항을 정리해 보고했고 참석자들은

이를 토대로 더 나은 행정서비스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연구모임 대표인 한영신 의원(천안2)은 “높아지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도민의 요구에 걸맞도록 행정서비스 혁신 방안을 마련해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연간 연구모임 회원들과 국내외 우수사례를 분석결과를 통해 도민의 입장에서 행정서비스에 대한 혁신 방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충청남도의회가 꿈꾸는 최고의 가치는 도민행복입니다.

충청남도의회
CHUNGCHONGNAM-DO COUNCIL

- ▶ 축산농가 및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하기
- ▶ 시발생국 여행 시 축산 시설 방문 자제하기
- ▶ 의심 증상시 1588-9060로 즉시 신고



“더 풍요롭고 번영하는 한해 되길”

충남도의회는 2일 오전 홍성군 소재 충남보훈 공원 충훈탑 참배를 시작으로 경자년 새해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유병국 의장과 이종화 제2부위원장, 김연-이공휘 상임위원장과 김명숙·조승만 의원을 비롯해 의회사무처 간부 직원들은 이날 충훈탑에서 헌화, 분향하며 순국선열을 추모하고 충남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했다. 유 의장은 “올해는 다산과 번영, 풍요를 상징하는 하얀 쥐의 해”라며 “충남은 물론 대한민국이 더욱 풍요롭고 번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해, 도민 신뢰받는 명실상부 선진의회 구현 박차

정책위 운영·예결산 분석조직 확대 4차 산업혁명 국제포럼 개최 등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가 도민의 뜻을 더욱 올바르게 대변하기 위해 그동안 구축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선진 지방의회 구현에 박차를 가한다.

특히 올해는 민선 7기 반환점을 도는 시점인 만큼 충남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 중심 의정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 정책위원회 운영

지방분권 시대 변화하는 여건에 맞춰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책위원회를 지난해 초 처음으로 꾸렸다. 기존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심의 기능에 중점을 두고 활동해 왔다면 앞으로는 집행부에 정책을 제

시할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싱크탱크’다. 도의원 10명과 교수,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까지 모두 20명이 참여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안 발굴과 조사·연구에 노력해 왔다. 올해는 발굴한 정책을 실현하고 또 다른 정책 발굴을 위한 연구에 매진한다.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한 예·결산과 시책사업·기획 등을 분석해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도민에게 꼭 필요한 정책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 예산·결산 분석 기능 강화

전문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예·결산 분석기능 강화를 골자로 한 의회 사무처 조직 개편에 돌입한다. 지난 10년간 집행부 예산은 두 배 이상 증액되는 등 갈수록 방대하고도 복잡해지고 있다. 지방재정을 면밀히 분석할 수 있도록 현행 입법예산정책담당관실을 입법정책과 예산분석 등 두 개 담

당관실로 나누고 예산분석 산하 두 개 팀을 신설, 전문인력을 확충한다. 객관·전문적 분석보고서를 통해 한층 더 고도화된 예·결산 심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 4차 산업혁명 국제 포럼 개최

4차 산업혁명 추이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을 위한 의회 차원의 대규모 국제 포럼을 올 상반기 중 개최한다. 포럼에서는 국내외 관련분야 저명인사와 대학, 학회 등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에너지와 이차전지, 수소와 자율주행 등 4차 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포럼을 통해 얻은 정보와 전문지식을 접목한 신산업 창출 정책 발굴 등 세계적 추세에 걸맞는 정책역량 육성에 집중할 방침이다.

◆ 사후 입법평가제도 운영

조례 제·개정에 따른 영향을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양·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입법평가제도를 올해 첫 도입한다.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 중 하나로, 조례 제정시 실행력 확보를 위한 사전 ‘합동검토제’와 함께 효율적인 행정 집행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현재 한국법제연구원 등 전문기관 자문과 타 시도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하며 평가대상 선정과 방법, 심의, 사후조치 등 입법평가제도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시행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위원회 구성과 연구용역, 올해 시범 운영을 통해 결과를 종합한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유병국 의장은 “지난 한 해 동안 인사청문회, 예산 조사·분석팀과 정책연

구원체 도입, 의정모니터,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운영 등 기존 의회의 틀에서 ‘한걸음더 했다’며 “특히 국민 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위를 달성하는 등 혁신과 청백을 모두 이뤄낸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도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통해 ‘도민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의회 역량 강화에 힘쓰고 도민과 소통할 것”이라며 “정책위원회를 통해 더욱 좋은 정책을 제안하고 예산분석조직 확대·개편을 통해 도민 혈세가 알차게 사용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도 ‘열린·공감·책임 의정’ 3대 목표 아래 ‘도민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고 주민이 원하는 실질적인 선진 지방의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42명 의원 모두가 더욱 뛰겠다”고 밝혔다.

가장 깨끗한 지방의회 ‘자리매김’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 전국 1위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가 올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며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지방의회로 자리매김했다.

권익위는 지난 10·11월 두 달간 조사한 전국 광역(17개)·기초(25개)의회와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10점 만점에 7.14점으로 최상위인 1등급을 획득하며 전국1위를 차지했다. 이는 직전 평가(2017년 2등급 6.63점)보다 0.51점 상승한 것으로 전국 평균 전체의회(6.23점)와 광역의회(6.38점)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다.

구체적으로 경제·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이 매긴 충남도의회 청렴도는 직전 평가 대비 0.85점 상승한 7.22점을 기록했으며 인사 분야에서

도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특히 단 한 건의 부패 사건이 없었던 점은 물론 의회 사무처의 부패 방지 노력 부문도 가점을 받았다.

실제로 도의회는 의원의 직무상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민간 부문 청탁과 산하기관 가족채용 영향력 행사를 강력히 규제하는 내용이 담긴 ‘충청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0월 제315회 임시회에서 제정하는 등 자구 노력에 힘써 왔으며 각종 위원회 도의원 추천시 소관 상임위원을 배제해 왔다.

유병국 의장은 “이번 1등급 평가는 기관을 넘어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를 공직자와 도민 모두에게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220만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정직하고 청렴한 대표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솔선수범 하겠다”고 밝혔다.

도의회 지난해 의정활동 빛났다

전국지방의회 경진대회 장려상

충남도의회가 지난 한 해 보다 체계적인 의정활동 노력을 인정받았다.

도의회는 지난달 19·20일 부산 해운대 한화리조트에서 열린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충청남도해양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와 ‘정책위원회 도입·운영’ 등 2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달 전국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공모한 자치입법 등 총 6개 분야 67건의 우수사례를 접수, 서면 심사를 거쳐 장관 표창 수상작 28건을 선정하고 상위 10건을 이번 경진대회 출품작으로 결정했다.

상위 10건 중 하나로 뽑힌 ‘충청남도해양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수산자원 보호와 생태관광 자원 발굴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장려상을 수상했다. 전국 최초로 지자체 특성에 맞는 해양보호구

역을 지정·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으로, 올해 4월 장승재 의원(서산1)이 대표 발의했다.

올해 처음 도입한 정책위원회(위원장 김명숙 의원) 제도 운영은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작으로 이름을 올렸다. 자치법규 입안 등 의정활동 지원과 정책, 지역현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지방정부의 두 수레바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도의회 임운수 입법예산정책담당관은 “그동안의 노력을 평가받는 동시에 자치분권 시대 더욱 체계적인 의정활동 지원방안을 고민해 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는 경진대회 전날 입법·정책 조사와 예산 분석·지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정책연구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열어 조례입안과 예·결산분석 실무, 홍보역량 특강 등을 통해 실무 능력 강화를 모색했다.